

제42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 | | |
|-----------------------------------|-------|---|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요청안 | | 2 |
|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 | 2 |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그리고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인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성숙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의 취지에는 충실히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제시와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종료된 후 보충질의 시간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10시0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한성숙

○**위원장 이철규**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고요.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겸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일궈 온 1세대 벤처 기업인입니다.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성공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로를 개척하며 사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고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경험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모여 시작한 IT 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저도 이 현장에 몸담으며 우리 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벤처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자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디지털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입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공동화는 지방 현안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벤처붐과 함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 경제의 저력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경영·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하겠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일상의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재취업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회복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재직 시 ‘프로젝트 꽃’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디지털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자발적 상생협력 1호 기업으로서 함께한 경험은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과 성장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책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돋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은 비용 효율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해석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데이터의 활용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이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과 AI 전환은 우리의 강한 제조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심었던 IT 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지금 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씨앗은 신산업이라는 열매로 성장해 줄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AI 사업에 도전하여 제조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으로 확보한 데이터는 AI 기술과 결합하여 제조산업을 혁신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육성과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제조 솔루션 기업의 육성, 제조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기존 제조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퍼지컬 AI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베티컬 AI를 통해 현장의 혁신은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제조 현장의 혁신과 K-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작년 중소기업 수출 1위라는 성공을 만들어 낸 K-뷰티와 같은 사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돋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관세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업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함께 창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해외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모태펀드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벤처투자자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전용펀드 조성, 해외거점 확대, 지역 권역별 창업거점 구축 등 지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에 기반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당한 경쟁과 예측 가능한 질서가 없다면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간 분쟁은 신속히 조정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제값대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의 관점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신뢰 기반의 거래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등과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거점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R&D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인재가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핵심 주체 및 유관 부처들과 근무 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안에서 창업-성장-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설계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면 각 부처와 산업현장,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위원님들께도 긴밀히 협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성민 위원 예.

○강승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자료제출입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자료제출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 우선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민 간사님하고……

○강승규 위원 자료제출하고 구분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자료제출하고 구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요.

정동만 위원님.

두 분입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배 위원님 자료제출이지요?

○이종배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다른 분,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일준 위원님.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성민 위원 박성민 간사입니다.

오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꼭 필요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이 간사님과 제가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또 성남FC와의 관계로 인해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확인해야 될 중요 증인들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 중인 중에 한 사람인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유서를 보면 해외 출장이 잡혀서 출석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56개 기관에 대해서 1966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958건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각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729건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중인 그다음에 자료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이 간사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인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정리해서 후보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할 테니까.

우선 그러면 박성민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김원이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아마 답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먼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정동만 위원님, 순서를 뒤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원이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상 털기가 아니고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삶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 후보자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박성민 위원 그걸 단정을 어떻게 하노? 김 간사가 그걸 단정을 어떻게……

○김원이 위원 검찰의 조사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박성민 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채택을 하는데 그걸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좀 들어 주세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간사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사님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거들었습니까? 발언 신청하고 기다렸잖아요. 의사진행 하시려면 또 기다려 주시면 되지요. 또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으면서 왜 그러실까요.

- 위원장 이철규 들어 보시지요.
- 박성민 위원 단정적으로 제 발언에 대해서……
-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시간 빼 주세요.
- 위원장 이철규 스톱해 놨어요.
- 김원이 위원 그래서 그동안……
- 박성민 위원 성남FC가 전혀 관계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 김원이 위원 그것은 정식 질문에서 한성숙 후보한테 하면 되잖아요.
- 박성민 위원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 지금.
- 위원장 이철규 그 발언은 좀 이따……
- 김원이 위원 아니, 한성숙 후보한테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막지 않잖아요, 우리가.
- 박성민 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나 증인이 있어야 묻지.
- 김원이 위원 아니, 한성숙 후보자 본인 당사자가 나와 있으니까 당사자가 어떤 판단했는지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성민 위원 그래서 증인을 채택하자는 건데.
- 김원이 위원 그런데 증인 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정진상 이분이 뭔 상관입니까, 그것하고? 증인 신청한 사람이 정진상, 또 누구였더라?
- 박성민 위원 정진상뿐만 아니고.
- 김원이 위원 성남시 관계자들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하시지요.
- 김원이 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세요.
- 김원이 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 그래서 이 성남FC와 성남시 간에 맺어진 계약 문제 관련해서는 한성숙 후보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성숙 후보에 대한……
- 박성민 위원 아니,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김 간사가 그걸 단정을 짓노!
- 김원이 위원 아니, 한성숙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아닙니까, 이 자리가?
-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을……
- 박성민 위원 김 간사가 무슨 장관후보자가?
- 김원이 위원 잠깐 끊어 주세요.
- 위원장 이철규 스톱.
- 김원이 위원 아니, 박성민 간사님, 이 자리는……
- 위원장 이철규 잠깐, 김원이 간사님.
- 김원이 위원 중기벤처부장관 한성숙 후보가 준비돼 있는지를 묻는 자리이지……
-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잠깐만 스톱!
- 박성민 위원 아니, 김 간사가 그 장관후보자가?
- 김원이 위원 성남FC하고 성남시하고 계약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 박성민 위원 어떻게 성남FC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왜 김 간사가 이야기하노?

○위원장 이철규 두 분 발언 중단하세요. 두 분 발언 중단하시라고 하고.....

○김원이 위원 그리고 최인혁 얘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간사님, 발언 듣고 난 다음에 반론을 하든지 하고.
발언 계속하세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발언하고 난 뒤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러면 저도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래서 증인 채택을 논의할 때 이분들은 한성숙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1번이었고 그리고 다른, 재판 중이었다는 사람은 기자 출신의 박 땡땡 증인이었지요. 그분은 재판 중이니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지 이 성남FC 관련한 내용은 한성숙 후보와 1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성숙 후보를 검증하는 내용과는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반대했던 거고.

최인혁 증인은 이미 6월에 회사의 기업활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그만.....

○김원이 위원 인사청문이 잡히기 전에 이미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장 이철규 정리할게요.

○김원이 위원 우리 인사청문회가 기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규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정리하시고.

다음, 정동만.....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답변을.....

○위원장 이철규 잠시만요. 이따 하세요. 좀 이따 하세요.

○박성민 위원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박성민 위원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아니, 정리..... 하세요. 한 텀 건너뛰어서 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러면 계속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본인이 무슨 장관후보자도 아니고.....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좀 하세요.

○**박성민 위원** 성남FC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김원이 위원** 장관 관련한 질문을, 장관 인사청문 관련한 증인을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두 분 간사님, 나가서 뒤에 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두 분 다 뒤로 나가세요.

○**정동만 위원** 두 분 밖에 나가서 협의 좀 하고 오세요.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빨리……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정동만입니다.

저희 박성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해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할 때 발생한 네이버 직장 갑질 관련 후보자의 문제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이신 현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최인혁 대표인데 지금 외국 출장 평계 대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인천부터 일상화하니까 증인도 민주당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들 문제 있으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또 더 심각해지면 ‘청문회 시간만 버티자’가 만능 해결책이 됐습니다. 더 이상 국회 인사청문회의 위상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 최인혁 대표 안 나온 것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각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의사진행발언,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서요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들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후보자부터 시작됐는데 자료를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제대로 제출 안 했는데, 김원이 간사님께서 아까 FC하고 한성숙 후보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이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이버 측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네이버는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성숙 후보자는 그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그러나 한성숙 후보자는 FC 사건이 벌어지는 그 당시에 네이버의 부사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기소는 대표가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사장의 자리에서 그 결재 라인에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받았는지. 그러면 네이버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한성숙 부사장은 그 당시 결재 라인에 없었다든지. 그런데 그런 자료는 안 내고 이것을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간사께서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김원이 위원** 제가 질문하라 그랬지요, 당사자한테.

○**위원장 이철규**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인사청문회의 이 진행 과정이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청문회의 후보자로서는 필요한 자료를 성심성의껏 내고 판단을 받아야지 자료를 안 내고 하루만 벼티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야당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들 이렇게 강변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절차대로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걸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만요. 기회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원이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기다리세요, 두 분 다.

다음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승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총 103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회신된 건수는 71건에 불과합니다.

오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 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후보자 자택 옆의 후보자 동생에게 임대한 삼청동 35-184 한옥 건물의 내부 사진입니다. 해당 건물은 후보자가 단독주택에서 2층 균린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남동생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이 사무실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거지로 사실상 활용되며 편법 절세 목적의 용도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부 취사시설 또는 주거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실내 사진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후보자의 네이버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네이버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역은 후보자의 동생 카페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 등 사적 유용에, 부적절 사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인 만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후보자님, 그 뒤의 청문팀, 마이크 꺼졌을 때 자료 요구하는 사항 내

용을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후보자 탈세 의혹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김민석 총리후보자 후보자 시절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침대 축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후보자도 마치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은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연간 납부한 중여세 내역과—일종의 쪼개기 중여세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왜 돈이 2016년도에 넘어갔는데 한참 뒤인 2022년부터 쪼개기 중여세를 냈는지, 이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간사 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당 간사께서 정진상이 관련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내부와, 예를 들어서 조찬 회동한 후에 협상인으로 정진상을 내보냈습니다. 겸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에서 보았듯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질책을 하시고 주질의 전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1건인 거지요?

○**구자근 위원** 2건입니다. 연간 납부한 중여세 내역, 밝혔던 내역하고 왜 16년도에 돈이 넘어갔는데 22년부터 중여세를 냈는지 그 사유를 좀 내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규**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한성숙 후보자께서 자료제출하는 것 보니까 마치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위원** 열른 합시다, 인사청문.

○**이종배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다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6월 18일 날 국정위.....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혹 치고 나오면 안 되지요.

○**이종배 위원** 김원이 간사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세요.

○**김원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들 하세요.

위원님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 자료 요구하시든 발언하실 때 좀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 이의를 제기하든 항의를 하시든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국정위에 6월 18일 날 소상공인정책자금 원금 감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제출을 못하겠다는 중기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됐고 또 이 문서가 생산되어서 보고까지 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건 무슨 법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들으셨지요? 뒤의 청문팀……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일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첫 내각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 측에 수차례 요청한 자료들 가운데, 저희가 172건 했는데 132건밖에 안 왔습니다. 40건이나 미제출됐는데요. 그중의 대표적인 게 후보자의 외환거래 내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향엽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한 번 하셨으니까.

권향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시지요.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네이버 대표 최인혁 중인 채택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받은 메일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중인으로 신청한 최인혁 님은 트랙슨이라고 하는 회사와…… 6월 27일 날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6월 27일은 인사청문회가 잡

하기 이전인데요. 이미 해외 출장 요청이 있었고 6월 27일 자 메일에 보면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출장 계획이 잡혀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상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모두에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총리의 말씀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는데 만약에 보충해서 하실 일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한 번씩 하셨으니까…… 잠깐, 잠깐만요.

○박성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아니, 하셨으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김원이 간사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반복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기회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성숙 후보자, 중기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 자리입니다. 야당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의 제출이 부실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영업비밀이라든가 또는 다른 법령, 이외에 어떠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있는지 지금 빨리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전 중으로 요구된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견들이 많습니다. 늘상 반복되어 온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두 사람의 중인이 채택이 됐는데 공교롭게 최인혁 중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이렇게 불출석 계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인 채택을 하기 전에 티켓팅이 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됐지만 6월 23일 날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다음 요청안이 제출된 사이에 출장이 잡힌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는 이것이 기업의 직무상 출장이냐 아니면 조금 다른 불편한 관계가 있어 갔느냐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요. 또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인 채택하기 이전에 출장이 결정된 거니까 양쪽의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고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중인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맹목적 망신 주기 또는 뭔가 정치 공세를 위한 중인 채택도 지양

돼야 될 우리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막아 내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그런 공방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박성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박성민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청문하는 과정에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고 김원이 간사가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간략하게 서로 공격성 발언은 하지 마시고 위원들 상호 간에는 좀, 김원이 간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본데 2분 이내로 간단히 끝내 주시고 서로 자극하는 발언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김원이 간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검증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후보자 소신이나 목표에 따라서 이게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증인도 부르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게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야가 바뀐 지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주요 증인으로 채택 돼 가지고 해외 출장 자료만 넣으면 그게 다 용인되고 인정될 수 있다면 과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인혁,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분뿐만이 아니고 여덟 분의 증인을 김원이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후보자 동생분 형제분이라고 해서 안 된다, 재판 중이라고 안 된다. 여덟 분 전부 다 안 된다고, 딱 이 최인혁 후보 1명만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오늘 출장 간다고 해서 안 나오고……

○**김원이 위원** 노조 위원장도 있잖아요.

○**김동아 위원** 오세윤 있잖아요, 오세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박상웅 위원** 발언하도록 놔두세요, 발언하도록.

○**박성민 위원** 그래서 총 여덟 분 신청을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분도 협상도 안 해 주고 또 오늘 출장까지 가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김원이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부분들도 있고 양해할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증인이나 자료는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저도 답변 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만하세요.

○**김원이 위원** 1분만,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잠깐만요.

○김원이 위원 아니, 그래도 박성민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김원이 간사님 잠깐만……

내가 보니까 박성민 간사께서 김원이 간사님을 띄워 주고 존중해 주는 발언을 했구먼. 뭐 더 이상…… 그만하세요, 이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질의 시간 일부를 중인신문에 활용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후보자님,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에 몸담으시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는 네이버하고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서는 네이버하고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한 일부인 중소기업계 그리고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업계의 우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그들의 어떤 성장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희들도 겸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점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일하게 플랫폼으로서 포털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플랫폼이,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직접 쇼핑과 모든 어떤 기타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파워링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금액에 따라서 배열의 순서도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포털로서 기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또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쇼핑도 마찬가지고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것은 카카오도 지금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을 보시면……

좀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어쨌든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를 지배하는 네이버가 상품과 서비스 시장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곧 포털의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어떤 경쟁, 시장의 경쟁을 스스로, 그러니까 즉 운영자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타당

한가 하는 의문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하고는 그 이해관계가 단절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의 중립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의견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면, 실제로 글로벌 포털기업들이 있는데 그 포털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직접 그 포털기업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례는 야후 재팬하고 네이버고요.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글이나 바이두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사업자들과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창작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이언주 위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에, 우리가 공기 내지는 물이라고 하면 이 물을 관리하고 공기를 관리하는 생태계 관리자가 그 안에 입점하는 이런,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 입점과 길목에서의 경쟁을 하는 플레이어가 스스로 되어서 거기서 경쟁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안의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포털은 데이터 기반이나 기술개발, AI 발전 등 서비스 진화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쇼핑이라든가 다른 거기에 파생되는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 포털에서 연결되는 쇼핑에 뛰어드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 이후의 그다음 순위를 노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한정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도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중기부가 티메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입점 중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대금 지급에 소요되는 문제, 대금 지급 기한이 굉장히 급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융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론 금융위라든가 정무위 쪽에 소관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평소에 중기부장관이 되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뒷받침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티메프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결제단에 있어서의 PG 사들의 재정건전성이나 관련 부분들을 관계 부처랑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챙겨서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는 일들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바뀌어 가지고 아직도 헛갈리네요.

먼저 한성숙 중기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것만큼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에 비추어서 과연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플랫폼 대기업의 임원,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 또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도 증인 채택 요구도 하신 것처럼 이게 성남FC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런 보은 인사로 네이버 측의 후보자를 중기부장관으로 발탁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또 전문성,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겠지만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부터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97년에 검색엔진 기업인 엠파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07년부터는 네이버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7년부터 5년간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장 경력과 커리어를 보면 대부분이 IT 기업 또는 네이버라는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런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과연 후보자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기부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스토어를 만들 때 저희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들을 저희가 디지털화 시킨다면 저희 네이버와 소상공인들이……

○**박형수 위원** 아직도 ‘저희 네이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 고객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과 네이버가 플랫폼사업자랑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박형수 위원** 너무 길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형수 위원** 후보자가 네이버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털 입점 업체에 독점적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해서 과징금을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는 자사 오픈마켓 제품을 알고리즘 조작해 갖고 먼저 노출되도록 그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 267억을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색서비스를 조작해 가지고 네이버 자사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올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15~20% 이상이 노출되도록, 자사 제품이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사는 그만큼 노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제품,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의 자사 제품, 오픈마켓에 있는 제품들이 먼저 죽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순위가 1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면 약 4만 3000건 정도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로 가 버리면 5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과징금 267억 받은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형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숙 후보자가 당시에 대표이사였어요. 대표이사였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도 해야 되고 또 경쟁사에 대해서도, 이것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공정위 조사에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련 사항들은 상고 중인 소송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형수 위원** 제가 재판의 승패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죄 못 합니까? 재판 중인 사건은 일체 언급을 못 하는가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울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배달의민족의 갑질이었어요. 배달의민족이 당시 수수료를 엄청 올리는 바람에 수많은 자영업자들, 영세 상공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앱을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겹쳐져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형수 위원** 안다 모른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형수 위원** 그 앱이 이런 거였어요.

가게배달이라는 것은 중개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민배달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해 주는 거예요. 크기 자체가 벌써 6배가 차이가 나오. 그리고 배민

배달은 들어가기 쉽게 ‘피자’ 이렇게 턱 누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게배달은 눌러서 들어가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앱 자체를 불공정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했던 검색순위 조작은 이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검색순위를 아예 조작을 해 갖고 자사 제품만 먼저 노출되도록 했잖아요. 이러한 배민의 갑질행위 이것과 네이버가 하는 행위는 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업체였는데 제가 ‘추악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네이버도 추악한 네이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적절치 않아요?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박상웅 위원 인사청문회가 아니지요, 이리면.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강승규 위원 아니,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뭐 하러 합니까?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강승규 위원 지금까지 장관들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 모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과했나요?

○김성원 위원 답변이 뭐가 그래요, 지금!

○위원장 이철규 잠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신념이라든가 소신 이런 것을 명확히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시 전에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여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구분해서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네이버가 그러한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못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정도쯤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실지는 후보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AI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큽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께서는 올해가 벤처 30년이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혁신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순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창업하기 좀 좋지 않은 상황의 순위 속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1000곳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100위권에 들어간 게 서울이 21위 그리고 부산·대전·인천이 1000순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 생태계는 사실 열악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벤처투자 규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벤처투자 규모가 21년도 15조 원대에서 24년도 11조 원대로 하락했거든요. 물론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상승은 했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GDP 대비해서 투자 규모도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인 0.26%.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어떤 게 있을지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싶어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스케일업된 상태에서 한 1조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됐을 때 국내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그리고 지금 엑시트할 만한 툴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코스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유관 부처들과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좀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상세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보면 민간 출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통계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다행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중소기업 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예산 4000억을 증액해서 22년도 수준인 9000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전체적으로 적정 규모나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대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스타트업을 통해 엑시트한 엔젤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는 사실 엔젤투자자들이나 이를 통해 재투자되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엔젤투자라든지 다양한 혁신의 자금들이 벤처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벤처업계 분들하고 말씀 들어 보면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풀린다면 지방에 가서도 창업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AI 스타트업 관련해서 AI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관련된 부분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확보하는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역 관련된 부분, 펀드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역펀드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AI 스타트업들도 인재 확보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더 보강해 줄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술기업, 기술대학들이 있는데 기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술자들을 확보할 거냐. 그리고 해외에, 지금 최근에는 아예 미국에 나가서 스텁퍼드나 이런 쪽 앞에 가서 한국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정도로 인력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관 위원 벤처·스타트업의 현안 중에 보면 R&D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산업부의 R&D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률이 사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하거든요. 이렇게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부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다 관련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R&D가 크게 기초연구를 하는 R&D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연구 R&D를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의 R&D 지원이 좀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기초연구는 과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바로 사업화 가는 부분 아이템에 대한 특화된,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들의 R&D 예산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들도 꽤 있습니다.

현장 말씀들을 들어 보면 투자를 해 보고 싶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모험을 하기 어려운,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여력을 갖고 상품화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시간 제약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위기 요소가 자금회수거든요. 자금회수를 위해서 M&A 시장도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또 주식시장도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

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관된 부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벤처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제삼자 승계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M&A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엑시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인수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제나 여러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님,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조직법 44조 읽어 봤습니다.

○**권향엽 위원** 45조에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사십오……

○**권향엽 위원** 보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영문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말씀해 보실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SME and Startup입니다.

○**권향엽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영문명에 스타트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혹여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중기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이재판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역의 창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을 크게 나눠서 그 지역의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계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창업 븐을 만들려면 스타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글로벌하게 도시별로 굉장히 많은 웹서밋(Web Summit)과 같은 행사를 합니다. 영역별로 핀테크 따로 하고 커머스 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영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일어나서 창업이 어떤 부분들인지, 창업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기대를 갖게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에는 굉장히 인구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상적인 면만 있지 않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 벤처·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작년 2025년 중기부 예산 확인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권향업 위원 본예산이 15조 2000이고 1차 추경에 4조 8000, 2차 추경에 9000억 원을 합쳐서 총 20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이 조금 안 되는 9조 7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인데요.

후보자님의 지금 경력이라든가 그동안 해 오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좀 후보님의 강점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네이버에서 제가 프로젝트 꽃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디지털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수펀드를 조성했던 게, 한 6000억 원 정도 조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을 쓸 수 있는 디지털전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향업 위원 2016년도에 프로젝트 꽃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또 57만의 성과도 있었고 굉장히 기대를 모아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프로젝트를 꽃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희가 그냥 하나의 상품, 하나의 사업자로 하면 이것의 가치가 그냥 상품으로 판매되지만 사업자의 이름이 잘 드러나면 브랜딩처럼 상품의 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하나하나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권향업 위원 온라인 창업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지고요. 1041만 명의 창작자를 지원해 내서 디지털 창업의 벽을 낮췄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초대 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단히 걸맞은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참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속히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알리익스프레스가 905만 명, 테무가 830만 명 정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만 놓고 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약 20%나 되는데 이용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에는 저가 상품의 공습이 너무나 가열찬데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지키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여러 플랫폼들의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권 관련 부분에서는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 봤을 때도 중국산 자재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한국 소비자들이 썼을 때 안전성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패션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IP 저작권 부분의 복제 물건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저희가 면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갑 김종민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정책 쟁점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업인 출신인 건 맞는데 네이버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이세요,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할 때 네이버의 경험을 좀 약간 잊어버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꽂이라든가 몇 가지 소상공인과 협력했던 사례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이버 경영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플랫폼 경제의 문제가 있는 그 흐름 위에 네이버가 올라탄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사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페이지는 사실 아니에요, 네이버는 성공했지만. 그런 점에서 기억을 잊어버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플랫폼 생태계라는 것이 승자독식 생태계 아닙니까? 지금 네이버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고 하는 사례들도 많지만 본질적으로 네이버는 검색광고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검색광고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들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대기업한테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장사를 잘하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전형적인 지대추구형 경제입니다. 이게 사실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검색을 하면서 그 검색에 달려서 광고가 같이 붙어서, 다양성 속에서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다른 나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네이버가 채택한 검색광고는 한국에서 성공은 했지만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 방식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좋지가 않은데 중소기업부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일단 중소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경제환경 속에서 판로도 좋지 않고 인력……

○**김종민 위원** 판로? 그러니까 판로도 있고 인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문제도

있고 또 R&D 기술 문제도 있고, 그중에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판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저는 판로라고 보지 않아요. 본질은 기술탈취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겁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본질이 혁신입니다.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 중소기업의 혁신 마인드가 시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기겠지요. SK텔레콤, 삼성전자, 네이버에 있다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나갔는데 삼성전자에서 SK에서 네이버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결국은 혁신이 보상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재들이 안 나오지요.

저는 이 기술탈취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게 특허청 소관이다 또는 공정거래위 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 중소기업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중소기업들이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최근 통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특허소송이 59건이에요. 패소율이 89%입니다. 최근 5년간 패소율이 60%, 72%, 75, 56, 89, 69에서 89까지 올라가 버려요.

소송이 59건이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요. 왜 59건이겠습니까?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59곳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기술탈취 관련된 제도가 소송해 봐야 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90%의 중소기업이 억울해도 소송해 봐야 팬히 돈만 깨진다 그래서 안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나 사업 다 포기하고라도 소송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59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90%가 패소해요. 실제로 엉뚱하게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에요.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혹시 이 기술탈취 관련된 소송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저희가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김종민 위원 이것 아셔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종민 위원 중소기업부장관 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른 AI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큰 흐름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깃발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들 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든지 특허청장이 하든지 중기부장관이 하든지.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기부장관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싸우고 법무부하고도 싸우고 국회 와서도 이 법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징벌배상제 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언론 징벌배상도 있지만 이 기술탈취 징벌배상도, 지금 외국은 기술탈취해서 징벌배상하면 회사가 대기업 자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 10배 하기도 힘들어요, 10배도. 3배에서 5배 정도 늘리는 것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현장 가 가지고 증거를…… 아니, 대기업이 여러 가지로 기술탈취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관리한 것을 어떻게 그걸 빼냅니까? 이걸 보장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서 장관 재직 시에 이 문제는 한성숙 장관이 뭔가 짓발을 꽂았다, 뭔가 마일스톤이 거기 찍혀 있다 이런 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의견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기술탈취 관련 부분은 아까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분들은 좀 더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국회 나올 때마다 제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 위원입니다.

보통 청문회 시에는 후보자 개인 능력과 또 청렴성을 검증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궁금하고 또 검증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전 국민적 의혹이 있는 피고인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 재판과의 연관성입니다. 특히 핵심 피고인 중 2명이 후보자의 전임자인 네이버 전 대표 한 분 있고 또 네이버 계열사의 전 대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전 대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부사장 시절에 네이버가 성남FC에 대한 40억 후원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후보자가 관여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동만 위원** 누가 결정했지요? 당시 부사장인 후보자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면 더 윗선인 김상현 전 대표와 또 이해진 총수 등 최고 권력자가 결정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정동만 위원** 대답을 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 사항은……

○정동만 위원 아니, 전 대표인데 전 대표가 했던 것…… 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최고 권력자 결정 맞지요? 그렇지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 면취진 재판, 범죄 혐의가 간단합니다. 네이버가 분당 제2사옥 신축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삼자인 성남FC에 40억 후원 요구했고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후원 대가가 실행됐습니다, 10억씩. 이 내용은 알고 있지요?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내용……

○정동만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2015년 6월 11일 날 네이버가 희망살림 1차 후원 10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2015년 8월 24일 날 성남시의 신사옥 부지 용적률 상향이 됐습니다, 870%에서 940%로. 방침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희망살림 2차 후원이 또 10억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사옥 고속화도로 쪽으로 자동차 진출입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또 3차 후원 10억 원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신사옥 건축허가 및 신축건물에 근린생활시설 지정이 허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의 희망살림 4차 후원이 됐고 2016년도 신사옥 공사 착공이 됐지요. 이 내용은 알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제가 정말 서비스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은 잘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정동만 위원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 직전 대표 할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이재명 대통령과 제삼자 뇌물죄 재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 문제없습니까? 대표 시절 때 재판 됐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야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내용도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 하면 업무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일 때 수사 진행됐는데 어떻게 내용조차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것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대답하기가 적절치 않은 거지요.

○정동만 위원 그러면 대답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시든지 대답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죄송합니다. 제가……

○정동만 위원 장관 돼서도 이렇게 대답 안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욱 위원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까?

○정동만 위원 이게 사실 왜곡이 아닙니다. 무슨 사실 왜곡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 다 나와 있는 건데?

후보자가 이 내용도 모르고 여기 청문회에 나왔습니까? 계속 청문회가 이렇게 될 겁니까?

문제가 더 있습니다. 또 해당 재판에는 네이버 외에도 두산건설, 은행, 병원, 백화점 등 많은 기업이 같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네이버와 두산 출신 중기부·산업부·문체부장관후보자 지명됐습니다. 이 방탄용 공직이라는 비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임명권자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네이버 대표 출신,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되는 것 대한민국 현정사에 매우 부끄러운 사항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장관후보자로 임명된 이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을 좀 더 빠르게 전환을 하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참 안타깝고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듣기 쉽습니다.

부정한 청탁 해결하고 제삼자에게 40억 후원 만들고 이게 범죄가 아니고 치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돼서 재판 중인 범죄 공모 관계 기업인 네이버 출신 국무위원 지명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정청탁 관계의 완성판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의 상황은 디지털전환을……

○**정동만 위원** 이 정권의 오만함이 만든 물염치입니다,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30년간 쌓아 온 IT 기업의 능력들이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최근에 총리가 대통령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눈이 높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눈이 높아야지요. 재판 관련 회사 출신 장관 만들어서 유죄받게 생긴 성남 FC 재판 무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상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들을 다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 일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한성숙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의 어려운 기업활동으로 얻은 성공과 좌절 속에서 얻은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미래산업이 가야 될 IT 플랫폼 산업 경력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대가 큽니다.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디지털 중심에 편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 고령화돼 가는 상인, 비디지털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 수립 시 업종 간 균형과 현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오세희 위원 지난 3월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규모가 큽니다. 7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장이 1097개 그리고 업체가 또 1175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피해 복구를 해 주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300만~8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영업활동 터전의 생계를 잃어버린 건데. 반면에 농업 분야는 피해 면적과 단가 기준에 따른 맞춤형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단 말이지요. 동일한 재난 피해인데 왜 소상공인 가게는 복구비 지원이 이렇게 안 되냐, 혈행 제도에 좀 문제점이 있고.

지난 5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소상공인도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이나 가능해요. 그러면 법 시행 전이라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미리 보상해 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폐업도, 영업 재개도 하지 못하는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가 법 시행 전이라도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산불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복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모두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부분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위한 생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쟁여 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하루빨리 방치돼 있는 폐업, 영업도 하지 못하는,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때 지역상권을 좀,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전국의 상가 지역상권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신규 주상복합 건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상가 공실의 증가로 지역상권의 붕괴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플랫폼 산업의 데이터 분석 IT 기반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중기부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진단, 전국 상권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중기부가 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 상권기획자가 아닌데, 상권기획자는 민간 주도로 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문 법인이라는 말이지요. 민간인데 지금 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권기획자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권기획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재산권, 공공정책, 국가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상권기획자들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지,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좀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듣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단기 성과로 운영되면 나중에 또 사업이 종료해 침체되고 그리고 특정 상권에 집중된 지원은 인접 상권의 침체를 또 해서 블랙홀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이 상권이 살면 저 상권이 없어지고. 그래서 단순히 상권기획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소멸, 상가 공실, 그래서 지금 상권기획자 역할을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한 상태에서……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제도가 먼저 되고 상권기획자가 나와야 되는데 상권기획자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첫째, 지역상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팀 구성을 해야 된다, 운영하고.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상권기획자의 자격요건과 검증 기준에 따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꼭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상권 데이터 분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지털을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데이터로 분석하고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분석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상권 전체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떤 데이터가 모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상권기획자 관련 부분은 제가 장관이 된다면 좀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어쨌든 전국의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상권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상권 관리, 상권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혀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또 방위산업의 메카인 창원 성산구 국회 의원 혀성무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언론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는 포털 대기업의 경영진까지 오르셨는데,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있으시고 또 두 명의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녀 1남의 차녀시던데요. 어머니하고 언니, 후보자의 집에서 사시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동생 두 분도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계시고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상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실패의 경험에 있으신 것 같고 또 후보자의

상가에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후보자의 차량도 동생에게 주신 것 같고 또 후보자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서 동생이 아마 경기도 외곽 지역에 주거를 마련하는 데 보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대가족 속에서 살 때 가족에 대한 의무감들이 다 있지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또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데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책임을, 가족들을 쟁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K-가장으로서의 역할, 장녀는 아니지만 차녀지만 K-장녀로서의 역할을 해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우리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보면 정말 보기 드문 막중한 책임을 지어온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아니라 이제는 또 장관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와 또 자매분이 함께 거주하는 후보자의 집, 후보자가 소유한 집 거기에 계시는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세금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들을 받습니다. 이게 현행 세법상으로 보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엄격하게 그걸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개념에서 내 집에서 어머니를 살게 했는데 또 내 자매를 살게 했는데 그것을 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가, 이게 참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지만 후보자가 장관후보자시기 때문에 세법상에 굳이 지적을 하면 지적받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번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어머님 집 관련된 부분은 제가 관련된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할 건데요. 현재 어머니 세금 관련된 재원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위원 후보자가 보여 준 가족 전체를 쟁여 온 그런 좋은 모습이 더 잘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디지털 시대, 플랫폼 시대에 중기부장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 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내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구글·아마존, 전 세계인이 알다시피 이런 막강한 글로벌 빅테크 위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국 국민의 검색창 네이버 그리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광케이블을 깔았지요. 초고속통신망을 깔았는데 그런 인프라 덕분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카카오가 오로지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가가 깔아 준 인프라가 있었지요. 그게 특히 김대중 정권 때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 토양 속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 사업 과정에 우리 소비자나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티메프 사건이 있었지요. 티몬·위메프 사건 때 우리 소비자들도 제대로 지금 배상을 못 받았고 그리

고 거기에 입점했던 소상공인들—흔히 셀러라고 이야기하지요—이분들 뭐 거의 보상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대기업 플랫폼 회사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셨을 거고 지금은 장관후보자이고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소비자들을 위한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세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하실 것인지 그런 묘안이 무엇인지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구축된 초고속통신망으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을 입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제가 장관후보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것들을 갚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플랫폼 업체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관련된 부분들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공직자로서의 인식의 전환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플랫폼사업자 입장일 때는 네이버 안에서의 고민을 하지만 대한민국을 그냥 전체의 커다란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일 때 사용자를 봤던 것처럼 플랫폼사업자들 전체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가 모셔야 될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를 듣고 말씀 듣는 것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허종식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자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앞만 보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 주변 다 챙겨 보고 돌아보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기는 참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사셨고 또 대기업에 근무도 하셨잖아요, 벤처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 벤처,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챙겨 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가 하실 거예요.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4월에 유명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철근 뼈대는 없고 그냥 콘크리트만 있어서 살만 있다 해서 순살 아파트예요, 이게. 무너졌거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기는 1666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었다면 이 해, 2023년 12월 말에 입주를 했어야 됩니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뜯고 새로 짓다 보니까 5년이나 늦어져서 28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보니까 젊은 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어요. 지금 이분들은 다 동가숙 서가식 하신 분들입니다. 안타깝지요.

넘겨 보세요.

국토부가 중재를 해서 3자 간 합의를 합니다. LH하고 시공사인 GS, 입주예정자가 '이렇게 하자. 봉괴로 인한 재시공은 불가피하니까 새로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빨리 짓고 제대로 지으려면 민간자재, 관급자재가 아닌 민간자재 사용이 불가피한데, 관급자재 예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기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허종식 위원 인천중기청에다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 17개 민간자재 중에서 레미콘 하나는 7월 초에 받았다고 그래요, 예외로. 16개 품목이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좀…… 빨리 좀 해 줘야 됩니다. 관급자재로 가면 늦어요. 그래서 민간자재를 쓰자는 거거든요. 중기부가 나서서 우리 서민들이 빨리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직 제가 자세한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은 챙겨 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다 말씀하시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해서, 서민들이 빨리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하고 박성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네이버와 성남FC,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 2019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인천도 인천FC를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인천FC입니다. 연간 160억에서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입니다.

넘겨 보세요.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FC에 총 39억, 40억 정도를 지원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직접 지원인데 사회공헌기금 이런 걸로 해서 희망살림 이런 걸 만들어서 제삼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맞지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허종식 위원 이건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인천FC, 제가 이건 직접 담당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그 당시 기준으로 해 본 거예요—11~16년 이럴 때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 인천시장님,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63억. 인천국제공항 역시 같은, 지금 정일영 의원님께서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일 때 당시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장님에게 연간 20억씩 줬습니다. 포스코건설 2007년에 10억, 역시 이분은 안상수 전 시장님입니다. 셀트리온은 지원을 했는데 사기업이라서 공개를 못 하시겠다.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 지원했는지. 그러나 본인들이 안 하

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민간기업이 다 지원해…… 여기도 똑같이, 성남FC에도 두산건설에서 지원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도 포스코건설이 지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공헌기금, 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략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원을 합니다. 아마 네이버도 전체 대기업 순위 25위쯤 되지요, 요새?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안 했느냐?

한번 넘겨 보세요.

대구FC, 대구은행으로부터 7억 받았고 연간 15억씩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다시 넘겨 보세요.

경남FC, 농협으로부터 10억씩 받고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00억을 후원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20억씩 받았습니다.

(「200억」 하는 위원 있음)

200억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이렇게 냈는데 각 FC나 각 시도에서 이것 자료를 좀 내 달라 그랬더니 인천시·대구시·경남도·강원도 모두 ‘주식회사여서 자료를 못 줍니다’ 어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 그러면 한성숙 후보자님 보니까……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보세요. 2020년에 누군가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남FC를 고발하니까 다 돈 안 내. 그래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혐의 났습니다.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이 다시 또 탈탈탈 털어서 오늘날 오게 된 거예요. 무혐의 처분된 거고. 여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기업이 후원합니다. 그런데 성남FC만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서 유별나서 콕 짚어서 ‘니네는 죽어’ 이렇게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후보자님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받았을 때…… 한 번도 가 본 적 없지요, 경찰서하고 검찰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없습니다.

○**허종식 위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한성숙 중기부장관후보자님, 우선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이버가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대기업입니다, 현재.

○**강승규 위원** 네이버는 플랫폼 대기업이지요? 플랫폼 대기업은 일반 대기업하고 달리 중소기업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협업관계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네이버의 중소기업과의 협업관계가 중요한데 이 협업관계에서 지금 보면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 사단법인을 성남시민의 빚을 탕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그런데 자본금 1억 정도는 남겨 놓고, 고정 자본금은 남겨 놓고 실제는 성남FC에 39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이버의 제2사옥을 건설하면서 다양한 특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성남시와 거래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 그 당시 임원진을 보니까 이해진 의장에 김상현 대표 그리고 한성숙 서비스총괄이사입니다. 중요한 임원이지요. 한성숙 대표 후보자는 이해진 의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사결정은 누가 했느냐? 재판 기록 등을 보면 김상현 대표는 뇌물성 의혹이 있다,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 반대했다 그러고 실제 기소는 이해진 의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성숙 서비스총괄이사는 물론 지금 아까도 대답했는데 전혀 이런 결정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성남시민의 빚 탕감,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보면 이런 분의 빚 탕감한다는 것이 어느새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거래, 뒷거래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의혹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꽃, 자상한기업 1호, 파트너스퀘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느냐 보니까 네이버가 그동안 대기업 플랫폼으로 거대 과독점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상당한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색시장에서 폐쇄형 검색시장, 가두리 검색시장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여러 가지 광고사업 등을 하면서 검색순위 조작,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를 못 한다 그러지만 검색순위를 조작해서 결국 네이버가 자사 또는 자사의 광고를 많이 내는 기업 등에게 유리하게 검색순위를 노출시키는 이런 부분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피를 좀 뺀 거지요.

이렇다고 보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고 그것의 동의의결로 공정위로부터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아서 생색용으로 지원한 것이다.

실제 네이버가 중소기업과 협업관계를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저 네이버는 성장하고 과독점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의심을 사는 사업 등을 해 왔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인가, 결국 거기에 서비스총괄이사부터 대표까지, 이에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성숙 대표가 과연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앞으로도 성장시키고 협업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 이렇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그동안 검색시장에서 구글이나 외국 경쟁 기업과 경쟁을 해서 우리 국내의 검색시장을 지켜 오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검색시장이 그동안 또 어떤 비판도 받아 왔냐면 폐쇄형으로 네이버라

는 가두리 안에 모든 콘텐츠를 가두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의 이런 과독점된 정보가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고 네이버 독식 구조의 큰 자원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려로 드러나고 이재명 정부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일선에서 은퇴했던 이해진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시화되는 그런쯤인 올 3월 AI 주권 수호시대를 외치면서 9년 만에 이사회 의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이었다는 한성숙, 제가 오후 질의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물러나 있고 유럽 법인 등의 대표를 하고 있던 한성숙 후보자께서 25년 4월에 귀국하여서 고문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명의 장관급 내지는 차관급 이상, 수석 이상이 배출됩니다. 하정우 AI수석, 최희영 문체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중기부후보자.

이걸 보면 네이버는 엄청난 콘텐츠를 그동안 검색시장에 폐쇄형으로 운영하면서 정보를 가두어 놓았고 여기에 AI 소비린 주권을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면서 거기에 모든 논리나 로직을 대응하고 있는 하정우 수석이 AI수석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로서는 문체부가 콘텐츠의 어떤 아주 창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최희영 전 대표가 왔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공정위 등에 대해서 대기업이, 플랫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과독점을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저기에 대해서 중기부후보자, 그러니까 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지금 AI 주권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 빅딜이다.

AI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춘 AI, 저도 전통산업과 결합한다는 AI 소비린 주권에 대해서 원칙은 동감합니다만 그것이 네이버 정보, 네이버 가두리에 기초한 그런 네이버 주권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중기부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일부 그런 답변도 하시기는 하던데 기업인 출신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기는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중기부장관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이고 또 정무직의 한 사람이라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기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들, 벤처·스타트업들, 자영업자들 여러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되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가, 대한민국이 위로가 되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가장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장관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티메프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지금 딱 한 1년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아마 전달도 받으셨을 것이고 검토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저도 저희 지역의 티메프 피해기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를 합니다. 정말로 매출의 거의 한 10% 정도 되는 매출이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대출과 여러 가지 정책자금, 은행권 대출 같은 것 해서 정말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액을 다 막아 내서 어떻게든 견뎌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또 오는 것이지요.

매출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기는 신용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금리조차 올라가는 일 그리고 대출 규모 자체가 원래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보다 훨씬 커지다 보니까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임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던 기업임에도 신용도가 또 어려워져서 금리가 또 올라가는, 이러면서 오히려 티메프 피해기업들은 그 어려운 파고를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아무 귀책사유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중기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이것 피해금액 다 보상하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야 무슨 법원에서의 결정 같은 것들도 사실 피해기업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누적돼서 더 커지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들도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도 있지만 피해기업들이 누적되는 상처 때문에, 더 이

상의 고통은 끊길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십사 하고요.

또 요즘에 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토스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장철민 위원** 야놀자도 그렇고요. 무신사도 국내 상장하네 해외 상장하네 하고 있지만 해외 상장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벤처기업협회 분들 뺐을 때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아까 오전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었는데 그 규모가 크고 나면 국내에서 더 이상 투자를 받을 곳이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의 여유가 있는 벤처캐피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투자를 받고 하는 것들이……

○**장철민 위원** 문제가 복잡하기는 하겠지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숙 정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업가치 자체가 워낙에 코스닥보다 나스닥이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지금 바꿔 놓지 못하면 코스닥은 오히려 정말로 그렇게 해외 상장을 못 하는 기업들이 약간 자기네 기술을 부풀리든 아니면 온갖 종류의 약간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뭔가 지금도 코스닥 시장이 2부 시장, 2부 리그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이런 우리나라의 유망한 기업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무신사든 야놀자든 토스든 꼭 중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자본 끌어들이면 좋을 수 있지 않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자본들도 국내 코스닥 시장이라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투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상장하기 전에 사실 다 이야기 끝내 놓는 것 알지 않습니까? 칠팔십 %는…… 사실 그게 어느 나라 자본이 됐든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이 아무 논의,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상장해 놓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장철민 위원**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든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그리고 자본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해외자본들도 함께 가져와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성숙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무책임하게 ‘오히려 외국자본 끌어오는 선호과도 있지 않아?’라는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뒷짐 지고 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든 실물경제든 결국은 또 외국에 상장하고 오래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대한민국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그리고 법인세를 도대체 어디에 내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지금의 시스템적으로는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장관이 되시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기업들하고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대책을 주시기는 어려워도 이후에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님 기고하신 기사도 봤고 그리고 업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관련된 부분들은 챙겨서 협의드리고 또 대책안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님, 성남FC 문제를 지금 계속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제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FC 문제는 검찰이 이재명 시장을 끊어매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제가 한번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18년 6월에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요. 2021년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검찰이 다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2022년 2월이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다음입니다.

2022년 7월 분당경찰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미 2021년 9월에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검찰이 다시 사건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님, 중기부장관에게는 저는 특별한 능력과 자질, 태도가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거의 구십칠팔 % 이상이 중소기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꽃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꽃은 김춘수 시인이 말씀하신 그런 꽃의 의미였습니까? 기업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였던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희는 아름답게 꽂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기업 하나하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 주고 찾아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의해서 고통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윤석열 정권 3년을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발언을 보면 회복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정말 수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요. 자금 지원, 저는 중소기업에 관한 이자율을 놓고 우리 한 후보자님께서 한 장관님이 되시면 금융기관에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정부도 설득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부처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옹호자, 지지자 그리고 또 저는 전사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난 아니겠습니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노동부가……

○**정진욱 위원** 이렇게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 재직자들이 평균 한 2.2년 그러니까 26개월 이상을 더 근무한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은 이 제도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대로 있는데 중소기업에게는 이직하지 않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2년에 기한이 만료돼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슷한 제도를, 거기다가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전혀 내용이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 제도 다시 살릴 생각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사실 제도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듯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엠파스 시절에도 사실 개발자들을 확보, 좋은 개발자들을, 일하는 데 있어서 병역 특례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창업했던 회사들이 좋은 개발자들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제도였습니다.

○**정진욱 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의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살리시고요. 또 다른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요.

아까 판로와 관련된 것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도 기술탈취라든가 중소기업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환경들을 없애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AI 디지털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아마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데이터를 스스로 가공할 능력도 사실은 크지 않고 또 데이터에 접근할 능력도 없는데 그 부분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또 사내에서도 디지털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 한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실 것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삼의 벤처 봄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적극 동의합니다.

○정진욱 위원 엠파스 하시면서 아마 벤처 1세대로 일하셨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인터넷서점을 창업하면서 벤처 1세대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의 열정 또 국가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상황에 대한 고마움, 그런 순간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한 후보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삼의 벤처 봄을 만드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사회에 활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집안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거나 혹은 은퇴를 했든 퇴직을 했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그들이 그 속에서 잘 움직이고 놀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법적·정책적 지원을 하는 환경 조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님 축하드리고, 전에 한번 봤던 것 기억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재선 때 봤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누구에게 언제 연락받으셨어요, 장관 내정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뭐 그렇게 얘기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냥 누구 인사 관련자가 했다 그래도 되고 한 보름 전쯤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을. 어디서 누가 직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니요, 기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뭘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뻔히 인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언제쯤 누가 통지를 했겠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았을 때, 저는 장관으로 한다 그러면 산업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중기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이것은 진심인데요, 중기부가 아니었으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지식을 봤을 때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중기부는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종배 위원 중기부장관을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한 겁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저 중기부장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인사 쪽에 들어가서

내정이 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장관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장관은 지금까지…… 그래도 한성숙 후보자는 일가를 이뤘잖아요, 부도 좀 쌓고. 부도 좀이 아니라 많이 쌓았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대기업의 CEO도 오래 하셨고. 이 정도면 상당히 일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관 내정되는 것, 장관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제가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보면 장관 내정이, 장관 추천한다고 그럴 때 대개 거부하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냥 선뜻 응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선뜻이라고 말씀하시면…… 고민이 저도 많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쓰임이 있다고 하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질문, 선뜻 응했느냐 아니면 나는 좀 고민 좀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며칠간 있다가 답변했느냐, 그런 것 답변하시라는 거지 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며칠은 고민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장관을 하고 싶다’, 평상시에 그렇게 중기부장관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의혹을 쌓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세요.

저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지법, 본인도 농지를 사서 농지법 위반했고.

농지법 위반했지요? 직접 자경 안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처음에는 해서, 출국해서는 이제……

○**이종배 위원** 농지법 위반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때 보니까 외국에 가 있을 때는 못 했고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게 다 위반이에요. 자경한다고 했으면 자경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위반이지요.

그리고 또 모친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편법증여. 편법증여도 건물도 있고 벤츠 자동차도 있고 현금도 있고 또 불법 증축한 것도 있고요,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도면 이게 평상시에 장관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지법 하나 위반 때문에 MB 초대 환경부장관후보자, 농지법 때문에 사퇴하셨어요. 중간에 후보자를 사퇴하신 것 아십니까? 박은경 후보자라고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기사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했다고 사퇴했어요. 국회의원직 사퇴한 것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건 잘 모릅니다.

○**이종배 위원** 잘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몇 년 안 됐는데? 몇 년 안 됐어요. 잘 모르세요?

이 농지법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사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 지적받고 의혹 제기했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개인의 양심, 개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의.

그러면 개인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어도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사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지금 여기 해 주신 부분들 중에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님 농지법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조금 설명드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기 중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뭐 어떤 거예요? 어머니 농지법 위반? 어머니 농지 전부 다 건물 짓고 그랬던데, 가건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들어와 있는 거라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 속에 있어서……

○이종배 위원 불법건축물을 누가 지었든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것에 대한 철거 등에 책임이 있는 것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계속 진정을 넣은 문서도 있고, 그들과 관련된 내용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돼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련된 부분들 좀 법적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하신 부분……

○이종배 위원 또 다른 분들이 물어보실 테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본인은 사퇴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중기부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것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지털전환은 제가 진심으로 돋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은……

○이종배 위원 예를 들면 벤처를 4대 강국으로 만들 계획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그런 것같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율이 한 30%, 4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별 소상공인들이 시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육칠십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세 가지 얘기하라는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철규 추가 하시고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하나 더 해 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유럽 가서 봤더니 한국의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K-컬처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뷰티 관련되어서는 수출 1등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파워와 AI가 결합해서 베티컬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보여서 이 부분은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한성숙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송재봉 위원 제가 죽 그동안 살아오신 경력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전문성을 봐도 그렇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협업 프로그램으로 했던 프로젝트 꽃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잘 녹아들어서 정말 영역 간의 또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가 잘 좀 자리 잡는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드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감사합니다.

○송재봉 위원 그럼에도 또 한편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쪽의 전문성에 비해서 소상공인 쪽에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현재 중기부 부처의 인력구조나 이런 것을 죽 보니까 지금 전체가 521명 정도 인력인데 중소기업정책실에 162명 또 창업벤처혁신실에 1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실에는 114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 750만 그리고 중소기업도 아마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는 다르지만 정책의 대상과 수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실 이 민생정책이 실패함으로 해서 3년 연속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100만이 넘는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정책 수요와 또 그 복잡성이 굉장히 들어난 것 같아요. 이에 걸맞은 인력구조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지적을 봐도 특히 소상공인 쪽은 정책과 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데 머무르고 있지 사전적으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직 전반을 한번 진단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규모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실 내에서도 보면 크게 보면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소상인이 많아요. 훨씬 많지요. 그럼에도 소공인도 숫자가 한 56만 3000 정도의 사업체가 있으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지역상권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상권과 인력을 보면 9명인데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중에 딱 3명이 소공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특히 소공인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전략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기도 디지털전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책을, 그래도 좀 제대로 대응하려면 여기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소공인 쪽도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소공인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에 뭘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보통 기업이 되는 혁신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대·중소기업 간의—앞에서도 우리 김종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기술침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2024년 중기부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보니까 1년에 298건, 한 300건 정도 기술침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자료가 혹시 있나요?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규정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가해기업이 자료제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자료가 잘 제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방식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랑 협의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우리 중기부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고 법률도 현재 발의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또 자료보전명령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은 현재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도 해서 아마 상당히 좀 조정도 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기부장관님께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보호를 하는 쪽에 서야 되고 또 그 입장에서 싸워 줘야 된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은 잘 아실 테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적 능력,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도덕적 검증도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무위원 자격 7대 결격사유, 7대 자격기준 속에 탈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다고 국민들께 오해 사시지 않으시도록 후보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가족관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1남 4녀, 4녀 1남 중의 차녀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애 후보자께서 일종의 가장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PPT 띄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보자가 가족들 살림을, 생계를 책임져 줬다 또 아니면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형제간 우애 좋은 거나 또 형제를 도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과 뒤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려운 환경, 특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역임하시려고 하는 그 장관직에 있는 분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포함해서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양심껏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은 허탈감·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셔야겠다, 한마디로 증명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후보자는 탈세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절감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애 탈세를 했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부분인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

을 드려야 하나요?

○ 구자근 위원 아니아니요, 동생하고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동생하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용증을 쓰지 않은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못 받고 있어서 그 이자 부분은 제가 최근에 와서 증여 형태로 처리를 해서 감면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동생하고 사인 간의 채권·채무 신고하셨습니다. 2억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2016년도 11월 달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동생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 구자근 위원 작성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채무 원금, 이자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자는 증여세……

○ 구자근 위원 아니아니, 그 부분 말고. 직접적으로 후보자께서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 구자근 위원 그런데 17년에 빌려준 돈을 동생 스스로가 22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이자분에 대한 증여세를 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은 후보자인 누나가 채권자면 채무자인 동생은 그동안 이자를 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은 형제자간이기 때문에 드링크라도 한 병 사 와서 누나한테 와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 차치하고라도 이자 부분이라도, 분할이라도 하겠다’, 어려운 형편 같으면 그 정도 하는 게 우리 보통의 상식인데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후보자 가족은 이 부분을 국가에 증여세 부분으로 이자 부분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 부리고 꼼수 부리려다가 이게 자꾸만 복잡해지고 스텝이 지금 꼬이는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판례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잠깐, 혹시 PPT 뜨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후보자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에 대한 부분들,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저게.

보통은 처음에 이 2억 4500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들어 5년 뒤에 증여세를 낼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사유로든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적발 내지는 주의조치 받은 이후에 냈다라고 치면 그 당시에 이 2억 4500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의 이자를 낼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실 줄은 몰랐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코치를 한 거지요. ‘이렇게 다 내실 필요 없이 절세를 하고 조금 기

술적으로 부리면 금액이 적어도 한 5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될 겁니다'라고 누군가가 코치했을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원금을 탕감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부분도 지금 월세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구자근 위원** 혹시 그러면 후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물론 회사 생활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임원으로 계시면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어머님 월세 부분은 제가 사실 디테일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관련된 증여세 부분은……

○**구자근 위원** 증여세, 어머니 임대 부분……

그러면 후보자님, 수림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수림은 제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 부분.

○**구자근 위원** 업태가 뭐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수림,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2019년도부터 수림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업태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가진 대표가, 업태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머님하고 임대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동생하고 관계에 증여세 편법적인 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보통은 네이버 이사 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잡, 스리잡 하시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을 텐데, 지금도 후보자로 계시면서 이 업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고 이 중소기업을 맡을 책임이 있으실까 심각히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임대사업자 부분은 답변드리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내라고 하시는 조항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 AI 전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오는 8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과기부도 AI 진흥에 5년간 16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동아 위원 또 중기부 역시도 지난 2월 AI 스타트업 특화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 2 차 추경을 통해서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AI 선도기업인 네이버 출신으로서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지원책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중기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도 말씀드린 사항들에 있었는데요.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제조혁신 부분입니다. 지금 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스마트 기업, 중소기업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린 추가 부분들은 그걸 수행할 스마트 제조, AX 기업들 관련된 스타트업들과 제조, 그러니까 개발 기업들을, 공급 기업들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AI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동아 위원 하여간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진홍도 진홍이지만 지금 AI 기본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신뢰성 확보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특히 34조에는 고영향 AI 사업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다르게 이런 규제와 의무조항에 대해서 대응 할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비전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DX, AX, 탄소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의 장점은 여태까지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법무, 행정, 전문 스태프 조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전략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소기업을 개별 개별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부가 전체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규제 영역에서도 좀 힘을 같이 보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관점에서 중기부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AI 전환 지원 특별법을 지금 중기부에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님 전문 분야인 스타트업과 투자 생태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유니콘기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22년 9개에 달했던 유니콘기업이 지금 4개, 2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벤처 창업해서 나도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꿈과 비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여러 벤처기업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 삭감과 벤처펀드 조성도 너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나 지금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관련 사항들은 업계에서도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계 투자사가 지금 한국에 투자할 때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막대한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환율 변동 리스크까지 부담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 투자계약이나 투자 의향을 성사시켜 놓고 나서도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국무위원으로서 잘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또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박봉으로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박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IPO가 되거나 상장이 되지 못한다면 스톡옵션 받은 주식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든지, 그런 컨트롤타워를 중기부가 좀 했으면 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신 새로운 보상제도 형태의 방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런 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제도개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패션이나 뷰티산업 관련해서 진홍에 힘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패션·뷰티·주얼리 산업의 담당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산자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산자부지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첨단의료, 원자력발전, 새로운 신규 원자로나 이런 첨단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패션·뷰티·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산하에 둬서 좀 노동집약적이고 창의적이

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기부가 관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정 기획위원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역할과 부처의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소기업과 관련된 영역들도 굉장히 많은 산업이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쓰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인혁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유력한 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로 내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쭉 해외 출장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양당 간사가 한번 확인한 후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고의로 이렇게 한 건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하셨지요?

답변하세요, 좀 크게. 잘 안 들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왔을 때랑 지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왔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오늘이 더 긴장됩니다.

○**김성원 위원** 당연하지요. 그때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나 준법성 또 책임성을 검증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게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후보자님 질의·답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내정이 됐을 때는 드디어 이제 기업인 출신이 와 가지고 좋구나 했는데 실망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 부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국무위원이 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주 큰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하고 질문했던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상

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그런데 공정위 의결서에서 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에 거래조건 차별행위,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 취급행위, 세 번째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스마트스토어지요. 거기에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기업의 대표였던 후보자가 과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대변할 자격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법적으로 아직 상고 중이니까 답변 못 한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기업의 대표로 있을 때 갑질을 한 거예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희가 만들었던……

○김성원 위원 아니,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책임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일 때 저희는……

○김성원 위원 아니,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세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대표가 불공정거래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사업을 풀어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김성원 위원 책임, 책임이 있나, 없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가 좀, 그 문제는……

○김성원 위원 자, 두 번째요. 환노위 국감 때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괴롭힘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최인혁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것은 조사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최인혁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나? 사임을 하고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에 있다가 사임을 하고 유럽 부문 대표로 갔다가 고문으로 다시 와 가지고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됐습니다. 그 유족들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김성원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유족들은 지금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그 당시 대표는 잠깐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유럽 부문 대표로 갔다가 고문으로 다시 갔다가 국무위원후보자가 됐고 그 당사자는 그때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지금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갔는데 그 유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후보자, 전혀 어떤 감정이 안 드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도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책임을 느끼시냐 안 느끼시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도덕성, 준법성 뿐만이 아니라 책임성도 같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중에 국무위원이 됐을 때 밑의 직원들이 사건이 났을 때 책임을 하나도 안 지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를 사임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서 어디 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유럽 사업은 사실 지금 네이버 프랑스의 조직들이어서 네이버의 규모에……

○김성원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네이버페이가 2016년도서부터 최근까지 판매자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소명서를 계속 요구했던 그런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 했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하신 건 잠깐 놓쳤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네이버페이가요 2016년도서부터 최근까지 판매자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필 소명서를 요구를 해요, 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곳에 후보자께서 대표를 하신 거예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반성문을 자필로 써 오라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네이버가, 지금 바로 직전까지 고문으로 있었던 네이버가 기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소송들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안 돼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반성문 형식의 소명서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그때 환노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영진을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유럽 사업 대표로 가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김성원 위원 마이크 꺼도 괜찮습니다.

후보자님, 그 당시 당사자 최인혁은 사임을 하고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그다음에 테크비즈니스 대표로 갔어요. 그리고 후보님은 네이버 대표를 사임했다고 하지만 유럽 부문 대표로 갔다가 다시 고문으로 왔다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진정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성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방금 김성원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이철규 아니요. 나중에 하십시오. 그건 지금……

○김원이 위원 지금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래요. 해명이 다 돼요.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한성숙 장관후보자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그런 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력을 죽 살펴봤는데요. 이력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출신으로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견해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의 장관보다 더 적합하고 나은 분이 우리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한성숙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공적영역 그리고 사적영역은 다릅니다. 정부 운영과 민간기업의 운영은 다르지요. 다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만 같습니다. 그 본질과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기능의 여러 분야 중에서 민간 분야에 계셨고 그리고 민간기업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공적영역에서 진행되는 정부 운영에 적합한 분인지 의심하는 국민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특히 후보자가 재직하셨던 민간기업은 대기업이고 거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거의 대부분의 이력을 네이버에서 쌓아 오셨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의 업무와 실태 그리고 그 애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우려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공적영역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자가 공직 수행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책임자와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은 아무래도 특정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들과의 상생 부분 그리고 사업의 영역 부분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효율과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짧은 시간, 지금 한 3주 중기부 직원분들과 같이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공적영역은 제일 먼저 기업의 영역과는 정반대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먼저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의 모두발언을 기업의 대표로서 순서를 잡았다면 첫 번째 영역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관련된 부분들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얼마나 공적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마음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주변에 사실 소상공인도 많고 저도 저희 집안에 저만 이렇게 좀 직업을, 번듯한 직업들을 갖고 있지만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옆에서 봤던 많은 장면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폐업과 그리고 창업을 자주 하면서 오히려 사업비보다는 다른 부분에 많은 비용들을 쓰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잘 못 알아듣거나 디지털전환이 뭔지 AI는 도대체 왜 해야 한다는 건지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의 역할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제가 프로젝트 꽃을 6000억이지만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적을 수밖에 없는 예산 속에서 풀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현재 중기부는 모든 과제가 다 프로젝트 꽃과 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해서 과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난 3주간의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공적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중단이 되더라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후보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나중에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피해기업 구제 방안

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질문할 거고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주된 업무 영역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실 경제생태계,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사업 수행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대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이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초 남았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광상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외환거래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아직 못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말씀 들었는데 제가 썼던 전체 카드 내역이라고 말씀을 들어서요.

○**서일준 위원** 후보자 동의하면 바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법 불문주의라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세법 불문주의.....

○**서일준 위원** 불문주의, 세법을 몰랐다고 해서 세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상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소유한 벤츠, 99%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언론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동생분이 중여세 830만 원 납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8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830만 원..... 납부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서일준 위원** 편법으로 중여했다는 이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던 부분들이어서 바로 남동생이 납부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1%의 지분을 동생한테 주면서 동생을 대표 소유자로 명의이전하는 방법 이것은 아시는데 중여는 잘 몰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동차는 제가.....

○**서일준 위원** 저도 공직에 한 30년 있었는데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5 대 5로 하든지 해야지 왜 1%만 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니, 이 부분은 제가 5년 타던 차를 그냥 주면서 했던 거라 그게 어떻게 그것까지 갔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서일준 위원 취득세하고 중여세 회피 목적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 중여세라고 하는 부분이 미리 냈으면 지금 낸 금액의……

○서일준 위원 이 방법은 어떻게 알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것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서일준 위원 아니, 후보자님이, 저도 공직에 30년 있었는데 1%만 동생을 주고 대표 소유자로 하면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서일준 위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차를 주고 제 남동생이 그 차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변경했던 거라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2019년부터 실제 운전자는 동생이라고 인정을 하셨던데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보니까 또 이 자동차세는 후보자께서 납부하셨더라고요. 또 자동차등록원부를 봐 보니까 아직도 후보자께서 99% 소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는 후보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부분도 다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세금탈루 이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세금탈루 의혹만 가지고도 장관후보자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이 꽤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이런 분들이 세금탈루 의혹만 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오늘 하루 버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서일준 위원 ‘법은 피해도 하늘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연건동 소재에 있는 건물 두 채 매입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서일준 위원 붙어 있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붙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건물, 가족분들이 카페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건물에……

○서일준 위원 세를, 임대를 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두 임대가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하는 카페랑 그 지하에 공방—제삼자에게 준—두 개가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두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서일준 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리모델링 전후입니다. 2020년이 리모델링 전이고요 오른쪽은 후인데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벽을 허물어 가지고 통로를 만들었던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서일준 위원 이것 허가받고 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해서 검토는 받았는데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관련돼서 수정할……

○서일준 위원 여기 평면 배치도에 보면 이게 연결하는 도면이 없습니다. 없고, 연결하는 통로에는 고정창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위반된 것이지요? 건축법 위반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수정해야 합니다.

○서일준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종로구청하고 관련 사항 말씀 들어서 조정할 부분들 지금 협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도 한호텔의 불법 증축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가지고 인명이 더 커졌다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법과 규제를 무겁고 무섭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정말 사회적약자인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책임지시고 거취를 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방금 국민의힘 서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정상적인, 건축법상 신고를 하고 나서 증축한 것 같지는 않네요. 무단 증축인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진행하면서 두 건물을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보니까 카페 두 개가 완전히 붙어 있어서 되게 길이가 짧고 그냥 카페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 지금 소방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두 개 건물 사이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한규 위원 이것 종로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을 일부 트는 형식이면 괜찮

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김한규 위원**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도 문의하신 것인데 민간기업에서 되게 성공하신 벤처 1세대이시잖아요. 디지털 혁신, 플랫폼 성장했다라고 하면 후보자님이 떠오르는 몇 분 중 한 사람일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민간에서 잘해 오시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이 왜 갑자기 공직자가 되려고 하실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민간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고 거기서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장관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만약에 오래전부터 장관의 꿈을 꾸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처신하고 했을 텐데 사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관련된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통신망 통해서 제가 누린 기회를 후배들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알고 그 기회에 참여하는 사람과 기회를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들어올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벤처 블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열리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만 중기부와 진행했던 자상한기업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직접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같이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들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기억할 만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보이는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이 산업들, 첨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동차 이런 굉장히 무거운 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는 소프트한 산업에서도 저희가 제조업과 물려서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데 저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독특해요. 중소기업하고 벤처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분야를 다 잘 아는 분들은 내부 승진한 공무원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외부에서 수혈되는 분들은 둘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한쪽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한 분야라도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또 인선의 이유가 될 텐데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중소·벤처 회사들, 플립이라고 하지요. 모회사를 미국으로, 해외로 옮겨서 상장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국내 기업이 해외에 가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1세대·2세대 벤처들이 변함에 따라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해외…… 지금 중간 업체의 입장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기이 회사가 커지면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고 해외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게 국내에서 상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 그냥……

○**김한규 위원** 왜 국내에서 상장을 못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가치가 한 1조 이상 되면 국내의 어느 기업들도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거나.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여러 다른 일들도 있다 보니 해외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규 상장할 때 구주매출 말고 신주발행으로도 1조 원 이상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해외투자를 받은 데들은 국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거냐, 그러면 국내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높이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노력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국내에서 상장하고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는 모태펀드 관련돼서 검토하면서 좀 더 스케일업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펀드 관련된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속해서 투자를 계속해 주지 않으면 계속 해외투자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모태펀드의 자금 규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김한규 위원** 관련해서 연기금과 민간투자 증진하겠다 이런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사청문회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흡집 잡기를 통해서 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정부의 신뢰를 깨어 내리는 데 더 목적이 두어지기도 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창피 주기로 전락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훌륭한 인재들이 오히려 국무위원 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 이른 게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자가 해당 부처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에 집중하고 또 국민들이 꼭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민 면접 인사청문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 또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갖추고 또 성과를 낸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중심에 있는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산증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 골목상권에서 국내 1위 포털 플랫폼 갑 네이버의 존재감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부터 네이버의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골목상권을 사실상 네이버가 다 흡수해서 네이버 중심적인 플랫폼 시대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대표님도 상당한 역량을 보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검색 알고리즘을 유리하게 바꿔서 노출 순위를 조정해서 네이버가 더 압도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2020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크게 부과한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당시 대표 이사가 한성숙 후보자이신데요. 이런 점 때문에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네이버는 상생 파트너라기보다는 경계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디지털 시대 플랫폼 생태계의 하위 구조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지위 남용을 막아 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핵심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께서 직접 운영해 온 거대 플랫폼 네이버가 이런 기조, 이런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의 독점적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회피라든지 대관 업무에는 막강한 힘을 보여 줬는데 전체가 다 잘 살아 나가기 위한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는 크게 앞서 나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플랫폼 기업이 커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매년 국감에 나와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은, 사실 플랫폼하고 사업자가 같이 잘 가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플랫폼사업자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알아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살펴서 챙겨 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한 후보께서 그런 관점에서 늘 고민을 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직 작은 인터넷 생태계 기업이라든지 또 중소·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슈퍼 갑 네이버에서 온 인사가 중소기업 정책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기업 대표 시기와는 다른 어떤 공공정책 역량을 충분하게 증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배달비나 광고비·수수료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거대 기업들한테 계속 빨려 나가고 있는 이 구조, 그것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정책과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배달 관련된 부분들 말씀 주셨고 저도 관련된 내용들, 티메프를 비롯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료 내용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랫폼사업자랑 중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통상 논의 추이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유관 부처들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네이버의 대표자로서 거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지위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인터넷 골목상권이나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구조 속에서 큰 역할을 했고 또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나 방향들을 정확하게 잡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큰 역할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초반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 사실 저희 지역 출신이셔 가지고 저희 지역의 여성 인재가 성공한 기업인이 되시고 또 기업인으로서 그렇게 성공하신 것을 가지고 그 역량을 활용하셔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공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실 어려운 민생경제 한가운데에서 그 파도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만약에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다 하고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 3주간 부처에서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일단 추경 통해서 만들어진 소비쿠폰이나 관련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긴급하고 절박한 지원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후보자로서 자료들을 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기사 봤습니다. 이 숫자가 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재기를 도와드릴 것인지,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취업과 관련……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도 별도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재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드릴 것인지 그리고 다시 창업을 한다면 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께서 지금 어려운 민생경제에서 또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추경에 대해서 또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8일에 KDI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경에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채무부담 개선사업 같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 대거 포함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9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텐데 이런 채무탕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연체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차후적으로 찾아서 사후적으로 대처할 부분이고 앞쪽의 많은 부분들을, 긴급한 부분들은 빠르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재기 기반도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거의 바닥의 바닥을 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또 어찌 보면 지속가능한 해법이고 정부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중기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 중에 성실 상환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드리거나 하는 부분의 추가적인 정책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을 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2차 추경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 질의에서 그동안 후보자님의 이력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영업자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다 염두에 두고 유념해서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현장의 기대를 잘 생각하셔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한성숙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 내각 인사를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하는구나 하면서 기대에 차서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정부의 내각 인사를 의기양양 인사다, 한마디로 의원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많이 내각에 포함되는 것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기업인들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기업인들이 모두 네이버 출신과 두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하고 두산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FC 후원금 받고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제2사옥 특혜를 주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하지만 이것은 보은인사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장관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자질 이렇게 볼 것입니다.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인으로서 사는 것과 공인으로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고 공인으로서는 적어도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놓지 부분이라든지 편법증여 의혹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증축의 의혹이라든지 도덕성에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과연 공인으로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에 물음표가 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질 부분입니다. 역시 전문성 부분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대하는 태도, 능력이 있느냐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일단 두 번째 부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에서 사망한 사

전에 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노웅래 위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한성숙 후보자께서 ‘그 미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위원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다?’, 한성숙 후보자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한번 시간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2019년 초에 신 모 책임리더가 네이버에서 넷마블로 이직했다가 최인혁의 영입으로 네이버에 재입사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과거 전력을 가지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7일에 고인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이 최인혁을 찾아가서 신 책임리더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 3월 4일 한성숙 그 당시 네이버 대표와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나경원 위원 그 간담회에서 책임리더 선발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가 네이버에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간담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간담회 회의록 띄워 주시지요.

간담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A 씨는 ‘책임리더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한성숙 후보자가 얘기한 그 질문일 겁니다. ‘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리더의 경우 네이버에서 퇴사할 때의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으나 그럼에도 책임리더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 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회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때 실제로 질문하신 분은……

○나경원 위원 그런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 요청하셨습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리더 선출에 관한 조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괴롭힘을 당하니 이런 사람이 책임리더 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정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내용을 들었다면, 실제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바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에는 네이버 회의록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정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네이버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고 한성숙 후보자가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이해진 의

장과 간담회에서 들었다면, 이것을 듣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것도 또 무능한 것입니다. 정정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도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기사에는 분명히 네이버 회의록에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강선우 장관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혹 해명도 거짓이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갑질, 사실은 시켜서는 안 될,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다른 후보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을 시킨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 징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 내용들의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팩트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장관후보자라면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피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장관후보자는 지난번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기사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이 위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를 내려 달라 말아 달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이버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사실과 다르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여기서는 회의록에 그렇게 써 있다는데, 네이버에다 이야기해서 네이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추가질의 때 좀 해 주시고요.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후보자님,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권이지요? 과거에 한 1990년

대 즈음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민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대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간 이즈음에는 저는 민간과 기업의 좋은 경험 그리고 공공과 정부의 좋은 경험들이, 장점들이 좀 서로 섞여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민간과 기업에서 쌓은 좋은 경험들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서 써 보고 싶어서 후보를 승낙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지금은 민간과 기업의 어떤 이런 성공 경험들을 정부나 공공에 흡수하는 방법이 사실 개방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혹은 정무직공무원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업이나 민간에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기업활동이나 이윤 추구를 하다 보니 공공에 계신 분들보다 사회적 의식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약간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건 인정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장관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더 그런 관계들을 잘 정리해 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으시지요?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중여 논란, 같이 살다가 우리 후보자가 이사하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남게 됐어요. 그 관계에서 월세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이 위원 이 중여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장관에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제 주식과 함께 어머니 주식을 같이 모두 다 취임 후 5일 이내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중여세를……

○김원이 위원 납부할 수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납부하실 세원이 마련이 됩니다.

○김원이 위원 그 사실 인지를 못 했던 것이지 그런 책임을 부정했던 것은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벤츠, 이른바 자동차 동생한테 중여했다는 이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5년 타던 차를 동생이 타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지금 남동생이 중여세 납부 완료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납부 완료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마 7월 7일 자로 납부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동생한테 2억 4500만 원 빌려준 건데 이게 보니까 이자를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자를 못 받은 겁니다.

○**김원이 위원** 못 받았고, 22년 7월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동안에 그 이자 관련돼서 법적 이자 부분이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들을 처리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형태로 하면 그 부분도 증여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자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으로 보면 장관 지명되기 전에 이미 22년 7월부터 그런 조치를 취해 왔던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저도 세무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 예, 이것도 보면 의도적이었다고 보다는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인근에, 이른바 농지법 위반 의혹인데요. 경기도 양평군 도곡리 전원주택 인근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은 본인이 경작을 하다가 유롭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했던 거지요, 여동생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처음 살 때는 제가 사실 주말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 대표 되고 유럽 가 있는 기간 동안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은 여동생과 엄마가 하고 계시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후보자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광사동 510-4 농지는 이것은 본인하고 상관없이 어머님 문제지요, 어머니한테 상속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물건이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 처리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오랜 시간 진정과 관련된 그걸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김원이 위원** 본인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그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려고 무던 노력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 부분은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한 1년 반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공유자도 같이 계셔서 공유자 찾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불법건축물 관련된 부분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연건동 상가 저가 임대 의혹 문제도 사실은 이게 사실오인 관계에서, 이해관계…… 아니,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부분은 남동생뿐만 아니라 지하에 공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삼자도 같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임대할 때 오랜 시간 전이었어서 그때부터 처음 정할 때 설정한 월세를 그대로 그냥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시절에 기사에도 착한 임대인 얘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그분께도, 남동생에게도 그냥 그대로 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이 위원** 보니까 임대계약서에 임대료를 현금이라고 작성했는데 실제는 계좌 입

금 방식으로 해서 실제 받아 왔던 것이고 약간의 낮은 금액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적 요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냥 한번 정한 것을 몇 년간 계속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성실하게 해명을 하면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벤처의 경험, 노하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엠파스를 성공시켰고 네이버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중소벤처부니까 벤처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단계별 성장 지원, 즉 아이디어 단계, 창업 단계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계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의와 각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들려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이 단계별로 굉장히 좀 다른 단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재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위원님 질의 주신 중에 3년에서 7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단계가 자금이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커졌을 때 경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아서 단계별 지원 방법이나 체계 그리고 투자의 방식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본인이 엠파스나 네이버를 이렇게 성장시켜 본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아마 획득한 어떤 경험들,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개인의 좋은 경험이 아니라 좀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장관님, 축하합니다.

○박형수 위원 벌써 장관님이야.

○김정호 위원 벌써 축하해서 너무 앞지른 건가요?

저는 가야왕도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말씀 중에 장관이 되면 추진할 향후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이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도록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스마트팩토리가 도입된 기업체 수를 혹시 3주 공부 동안에 파악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공장이 16만 개고 그중에 공장을 가동하는 게 한 7만 개, 3만 5000개 정도가 스마트팩토리 대상 기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정확한 것은 자주 질문을 받으실 내용이라 이제 숙지하시게 될 텐데요. 2만 5000개 정도가 스마트팩토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기업이 63만 개 인데요—22년 통계입니다—63만 개에 비하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조사에 보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4%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그야말로 전산 도입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스마트공장이 지금 기초 단계, 중간 단계도 1·2단계 또 고도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문제는 스마트공장의 기초 단계가 2019년 지원 예산이 2500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23년도는 전면 삭감되었고 24년·25년 또한 빵 원입니다, 빵 원, 제로. 집권 3년 동안에 스마트팩토리 기초 단계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스마트팩토리의 기초 단계 부분은 그 부분에 집중되어야 AI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개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3만 개가 채 안 됐지만 이제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게 사실상 중단된 것이지요. 그 숫자도 보면 30% 줄고요 반면에 고도화 단계는, 기초가 30% 준 반면에 고도화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에만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기초 단계는 줄어들고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전환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관련된 법안 관련 부분에도 좀 담기고 더 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기초 단계에 대한 부분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는, 동시에 물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AI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과 AI 기업들의 연결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AX 전문 공급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렇게 3단계 형태로 좀 나눠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로 그 저변에 기초 단계를 더 가속화해서 많이 보급·지원하고 중간 단계,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가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에 취임하시면 그런 스마트팩토리 관련 예산의 구조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예산이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해서 23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고도화 중심인 AI 트랙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기초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보급률이 감소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로 디지털전환으로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더더욱 기초 단계 확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대표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AI 제조·전환 전문가답게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에 특별한 구상 혹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단계와 AI 고도화 단계 그리고 AX 전문기업 육성에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호 위원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예산을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특히 내년 예산에 보다 많이 편성을 해서 복원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기초와 고도화 단계의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한성숙 후보자님,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혹시 삼성전자나 LG전자 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면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후보자님의 장점이 있다면 업체와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된 부분……

○박상웅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대한민국은 재벌기업의 고유 영역이 있고 또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재계 몇 위지요? 아까 대답 잘 하시더만, 25위라고 했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정확한 순위는 잘……

○박상웅 위원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사장 출신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거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CEO 출신이 재계 25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이라고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런 기업 출신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2007년부터인가 네이버에 몸을 담고 지금 이 시간까지 네이버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년간, 최근 9년간 네이버에 재직하면서 총소득이 190억 원이더만요. 그리고 250여억 원에 해당되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그것을 이행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미 실행해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는 440억의 총자산을 거론하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 자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스톡옵션 행사한 부분은 한 35억 정도 됩니다.

○**박상웅 위원** 총자산은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180억과……

○**박상웅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35억 정도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없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금 역대 최고의 자산가로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이 된 것, 개인으로 보면 대단히 행복한 일이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본인의 부의 축적의 전반적 과정은 새로 떠오르는 인터넷·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한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의 운영 속에서 본인이 그만큼 재산을 축적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어요. 금리 걱정하고 이자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상환해야 될 채무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경기는 급속도로 열어붙고 있고. 그런데 꼭 꿈나라 달나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AI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던 분이 느닷없이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밝히니까 저도 고맙기는 한데 이해는 잘 안 가요.

혹시 그동안, 이럴 줄 몰랐겠지만, 혹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기여하거나 그 부분을 탐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상웅 위원** 잠깐만요.

전에 규제를 받아서, 정부 규제를 받아 가지고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답으로 여러 가지, 아까 무슨 네이버 꽂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생하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는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놨을 것이지 스스로 자진해서 네이버가 이러한 전반적인 이 산업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를 선제적으로 한 건 아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네이버의 CEO 출신이 중소기업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말 국민들은 답답합니

다.

2021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을 아까 위원님들도 거론을 했는데 당시 21년도에 민주당 위원님들은요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발언을 하신지 아십니까? ‘가해자는 승진시키고 신고자 일부에게는 직위해제라는 2차 가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쏜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후보자가 괴롭힘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며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은 일찍이 다른 기업에서는 본 적 없는 악덕 기업이라고까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 오늘 이 시간 보아하니까 우리 후보자를 상당히 많이 두둔하고 감싸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느냐?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이고 특히 중소기업부장관 역할을 하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분들을 지금 갑자기 후보자가 됐다고 위한다고 여러 가지 비전만 잔뜩 내놓으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뉴스 배치를 조작해 가지고 포털 권력을 이용한 알고리즘 조작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260억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장금 부과한 일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거는……

○박상웅 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안 끝난 관계로 아까 질문하는데, 박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이건 재판 중인 일이라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재판에 계류된 그 기업의 CEO 출신이면 이해충돌에 명백히 해당되고 그렇다면 여기 나와서 답을 못 할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그 제의를 사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잡다한 이런 가지 불법·편법 의혹은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심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한성숙 후보자님,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걸 맡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프로젝트 꽃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후적 대응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 처음 설계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이것이 지금의 성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께 있어서 물론 이익집단입니다, 기업은. 그러나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잘돼야 사업이 잘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기업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네이버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이버는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서비스총괄이사 겸 부사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그때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후원이나 기부 같은 거 할 때는 부사장님이 주로 담당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비스총괄이어서 서비스총괄과 그 관련된 담당 영역들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박성민 위원 그 기간이, 2년 동안 부사장 하던 기간이 정진상·이재명 이런 분들하고 근무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재명 시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한 번도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진상 실장은 만난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진상 실장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에 네이버 출신 세 분이 발탁됐어요, 후보자님 또 하정우 미래수석 그다음에 최휘영 문체부장관. 이렇게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초대 인사가 세 분이 발탁됐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박성민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네이버 출신 세 분을 발탁한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AI 관련된 부분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고 또 2명의 전직

네이버 대표이사 재판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이 와중에 기업의 전 대표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어떤 피하기 위한 술책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이 소상공인과 디지털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선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에 기부한 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42억, 50억, 39억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정확한 금액 모릅니다.

○박성민 위원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장관후보자가 지금 네이버하고 성남FC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게 핫이슈인데 그것을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확인도 안 했습니까? 장관후보 준비하면서 그것 자료도 한번 안 봤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말이 됩니까? 예? 뻔히 알면서 그것을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게 제일 큰 이슈인데 그게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보고 인사청문회 나왔습니까?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어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39억입니까, 4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네이버가 성남FC에 해마다 한 건, 한 건씩 허가받을 때마다 10억씩 준 게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네 번 받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사항은 정말 모릅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아니, 후보자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 사항을 모른다는 게, 무조건 모르쇠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원이 위원 모르신다잖아요. 자기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겠지요.

○정동만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다고.

○위원장 이철규 제삼자는 발언에 끼지 마세요.

정동만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박성민 위원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모른다는 게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한테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전에 알았냐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자료로 주신 부분들은 모두 다 자료를 통해서……

○박성민 위원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로 추천한다는 통보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며칠 전에 받았냐고요, 추천을?

오늘 인사청문회 나와서 무조건 모른다, 자료도 없다, 그렇게 무조건 하루만 베토면 당신은 무조건 국무위원, 장관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하루만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합디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성남FC에 네이버가 후원한 것을 그 금액을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무조건 모른다는 이야기가……

(영상자료를 보면)

2015년 8월 24일 날 성남시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해 주고 10억, 그다음에 2016년 7월 1일 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고 10억, 또 2016년 9월 8일 각종 인허가 완료했다고 10억, 이렇게 할 때마다 한 건씩, 한 건씩 행정 편의를 봐줄 때마다 10억씩 기부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는 허종식 위원님 참 존경하는데 인천 부시장 할 때 또 대구시에서 기부금 받은 것 이야기하던데 저도 단체장 해서 기부금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전제로 이렇게 단계별로 기부금 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순수한 기부입니까? 거래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10억 주고 용적률이 상향됐고 그다음에 2차에 10억 주고 진출입로가 변경되고 또 10억 주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되고 마무리되고, 이게 대가성 거래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원이 위원 용적률 저렇게 상향하는데 10억밖에 안 받아요? 870에서 940으로 올리는 데 10억밖에 안 받냐고. 아니, 성남 저 땅을 저렇게 용적률을 올렸는데 10억 가지고 되냐고. 받으려면 1000억은 받아야지.

○박성민 위원 지금 민주당 간사께서 훼방 놓는 바람에 말이 잘 안 되는데…… 좀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고.

○김원이 위원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대가로, 지금 마지막으로 장관후보자 두 분 또 수석 한 분 이렇게 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뺨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주질의가……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청 아까 이미 한 게 안 된 게 있나?

○강승규 위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제출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안 된 게 뭐지요? 자료제출 요구 뭔지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1분만 주세요.

제가 삼청동 한옥 관련해서 한옥이 근생시설로 변경됐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하지 않은 취사 시설이나 주거용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내부 사진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일부 공개를 해 왔는데 본인들께서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공개하고 다른 부분, 저희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후보자 동생분께서 그에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 제가 2차 질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할 내용인데 상가, 그러니까 한옥의 2종 근생시설의 내부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상가건물의 불법 증축과 함께 이 부분은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의 여러 가지 증개축 문제나 근생시설의 용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불법을 자행해 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질의 전에 꼭 자료 부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질의가……

○나경원 위원 저도……

○위원장 이철규 자료제출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네이버 간담회 회의록을 지금 네이버 측에서 못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께서는 그 간담회를 똑똑히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했으니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에게 이야기해서 그 간담회 회의록 제출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주질의가 끝났는데요.

후보자님, 잠시 전에 두 분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삼청동 한옥의 내부 구조 사진인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이라면 내부 사진을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후보자가 요구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공개된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 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 이것과 관련된 회의록을 네이버 측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업비밀에 관련된 거라면 네이버에 이 회의록을 달라든가 자료를 달라는 게 뭐 거부한다든가 하는 게 일종 이유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나요,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회의록을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깔끔하게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어렵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드린 사진이 전부 다고 제가

보니까 안 찍힌 부분이 화장실 부분만 안 찍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찍어서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그리고 네이버의 회의록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장 이철규 네이버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다 드러난 일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하고 중언을 함에 있어서 전혀 그런 대화가 없었이라고 여기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확실히 털고 가야지 당당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축구를 드리고요.

제가 이 회의를…… 지금부터 시간을 재세요. 내가 이 회의를 진행하다 청취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로 보내온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이 양평 서종면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취득했느냐 할 때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셨지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것을 주말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취득하신 게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전원주택……

○위원장 이철규 맞습니까? 그런데 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이것을 자경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직업도 자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취득자격을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왜 이런 결과가 생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게 대리인이 신청하시면서……

○위원장 이철규 좋습니다. ‘대리인이 실수로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지금부터 이것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생기고 후보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하셨고 그다음에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후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리하는 사람이 잘못 적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하고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취득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펜션을 하던 주택이 있고 그 옆에 있던 농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주택과 옆에 붙어 있는 부속농지를 취득하셨지요, 1차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장 이철규 1차로 취득할 때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때는 농지의 크기가……

○위원장 이철규 농지인데 왜 취득자격을, 자격증명을 안 받아도 되느냐 하면, 농지법

을 아시잖아요. 330평 이내…… 300평이지요, 300평 이내의 농지는 자격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지 취득은 대전제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자경할 사람 외에는 농지를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게 대전제이고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일반화된 상식을 위해 농지 취득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2009년 12월 달에 취득할 때는 농지자격취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주말농장으로 써도 되고 부속토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300평 이상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농지법의 대전제고 이것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 이상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게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후보자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국민들보다도 이런 사회규범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런 규율에 따라야 되고 특히나 그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많은 분들이 낙마를 하고 또한 이것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아까 분명히 주말농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말농장으로는 농지 자경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런 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겁니다. 이것은 실정법에 어긋나고 벌칙도 굉장히 무거워요. 물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를 떠나서 이렇게 어떤 목적이든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그다음에 이 법을 협회화시킨다는 것은 국무위원을 하시겠다는 분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되기 이전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셨지요? 자기진술서를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구로부터 언제 장관 내정을 통보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장관에 지명되기 위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현 정부도 국무위원 대상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진술서를 받았을 겁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장 이철규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김원이 위원 신원진술서.....

○위원장 이철규 자기검증진술서를요.....

○김원이 위원 동의서 같은 것을.....

○위원장 이철규 아닙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답변을 하세요. 완전 뭐, 버티기잖아.

○위원장 이철규 가만히 계세요.

○**김원이 위원** 이제 좀 쉬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후보자님, 이것은 왜인가 하면 누가 이것을 숨긴다 해 가지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답변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지명할 때는 사전에 이 장관을 지명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검증진술서를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자기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증부서에서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통보해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게 비밀이 아니라 인사…… 예를 든다면 비서관이 했을 수도 있고 또 수석이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가 통보를 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너무 오래 하세요, 혼자.

○**위원장 이철규**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재고 하니까……

○**박성민 위원** 간사님, 진짜 가만히 있으세요. 회의하는데, 다른 사람 발언하는데……

○**김원이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10분 넘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후보자님, 이것은 후보자님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해하지 말고.

○**위원장 이철규** 자,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처음에 살 때는……

○**위원장 이철규** 아니, 살 때뿐만이 아니라 지명받기 전에 통보를 받으면서 이것 체크리스트 체크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까 말씀 주신 주말농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농장으로 해서 농지 관련 취득 필요 없었던 것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의 그 땅을 살 때는 농지 취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부분은 취득원을 낸 겁니다. 다만 취득원 내면서 제가 그 부분에, 직업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 부분은 대리인이 쓰시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후보자님, 그래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편법으로 취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경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70%를 자경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처벌받거나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이 높은 기준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사실상 이게 공소시효 범주 내에 있다면 명백하게 농지법 제57조의 벌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사검증 부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데 자꾸 진술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다른 분이 질문을 하든지 할 겁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위원장이 이걸 충분히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검증을 우리가…… 나중에 질문 때 변명할

기회를 드리면 되잖아요.

○**박성민 위원** 인사청문회를 김원이 간사하고 김동아 위원하고 훠방 놓고 있다, 훠방 놓고 있어.

○**김원이 위원** 아니라니까요, 간사님.

○**김동아 위원** 제가 무슨 훠방을 놨습니까?

○**김원이 위원** 훠방 논다고 놔집니까, 그게?

○**박성민 위원** 여당이라고, 어느 정도껏 해야지.

○**위원장 이철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것은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문제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고발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위증의 책임은 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 1인입니다.

참고로 최인혁 증인은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명단, 출석 현황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직원이 실시하였으므로 간단히 출석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하고 답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오세윤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오세윤** 예.

○**위원장 이철규** 자리에 앉으십시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 즉 허위로 진술하거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세윤** 선서, 본인은 국무위원후보자……

○위원장 이철규 오른손을 들고요.

○증인 오세윤 예.

“선서, 본인은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증인 오세윤

○위원장 이철규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을 원하실 경우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증인, 증언대 좀 나와 주실래요?

네이버 지도 개발 부서에서 리더급으로 근무하던 구 모 씨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그 책임자들이 자리를 떴고 또 어떤 책임 있는 조치 등을 본인들께서, 사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책임을 졌던 최인혁 대표도 그렇고 한성숙 당시 서비스총괄이사도 그렇고 제자리에 복귀하거나 지금 중기부장관후보자로까지 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그 당시 직장 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그 이후에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오세윤 아까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구성원들에게 2021년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아직도 저희 아픔으로 남아 있는 일인데요. 당시 저희는 그 일에 최인혁 CEO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최인혁 CEO가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이번에 복귀하게 된 것이, 이사회의 어떤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된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최인혁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진 의장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같은 동문이지요?

○증인 오세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심이다 뭐 이렇게……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최인혁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후보자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최인혁 대표에 대해서 뭘가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취했습니까?

○증인 오세윤 한성숙 대표께서, 후보자께서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인혁 CEO가 당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고 저희 네이버 ‘공동성명’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후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직장 내 수직적인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해

결되었습니까?

○**증인 오세윤**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책임자가 이 일의 책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뒤에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논의해야 되고.

당시에 후보자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서, 사실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면서요—아까 책임지고 물려났다고 말씀하셨는데—그러면서 새로운 경영진과 직장 내 괴롭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문화 진단 등을 하면서 약간의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최인혁 CEO가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최인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계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요. 지금 노조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내 이런 문화가 결국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소위 시쳇말로 도로 아미타불,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오세윤** 당시에 물려난 것이 이사회의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이사회가 그 결정을 뒤집고 최인혁 CEO에게 해명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오세윤** 예.

○**강승규 위원** 저는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대기업입니다. 그중 플랫폼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관건이고요. 네이버는 그럼에도 갑질 및 독과점, 골목상권 잡아먹기 의혹에 늘 시달려 왔습니다. 2014년 검색 노출 및 뉴스 알고리즘 조작으로 중소 쇼핑몰과 언론사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용으로 500억짜리 중소상공인 회망재단을 출연했습니다.

성남시민의 빛 탕감을 표방하며 41억짜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중 39억 원을 이재명 시장이 단장으로 있는 성남FC를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는 성남시 제2신사옥도 설립했고 출신 임원들이 대통령 이재명 초대 중기부장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문체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다음입니다. 현재도 네이버는 매출의 64%가 검색광고·커머스로 창출되며 미래산업으로 AI에 전격 뛰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데이터 확보, 대한민국 문화관광 콘텐츠, AI 전략이 모두 네이버 출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이 되어 직을 수행할수록 네이버의 시장 기득권은 공고해지고 중소상공인들은 더욱 네이버에 종속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제조업 데이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이버로 결집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현 정권과 사법리

스크를 공유하는 대기업 CEO 출신으로서 명분·자질·이해충돌 차원에서 스스로 직을 사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을 신청하시지는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2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손을 둡)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그러면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증인, 저쪽 증언대로 좀 와 주실래요? 그쪽에 있으면 제가 안 보여서.

오세윤 노조 위원장님 맞으시지요?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당시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 내에서 경영진하고 협의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과…… 새로운 경영진과 재발 방지 대책과 새로운 노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증인 오세윤 예.

○김원이 위원 그러면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최인혁 씨가 사임한 거지요?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최인혁을 사임시키는 데 당시 한성숙 대표의 어떤 역할이 있었지요?

○증인 오세윤 제가 그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이사회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진들이 임명돼서 그 경영진들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교섭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사회의 최인혁 해임 과정에서 그런 역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최인혁이 사임을하게 된 거지요, 책임지고?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이번 최인혁 CEO의 복귀와 한성숙 후보의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오세윤 당연히 제가 알기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 이사회의 어떤 문제가……

○김원이 위원 이사회의 문제지요?

○증인 오세윤 이사회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오세윤 그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이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증인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이 한성숙 후보자가 이사회의 일원인가요? 당시 최인혁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일원인가요?

○증인 오세윤 그렇진 않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최인혁 CEO, 그러니까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최인혁의 복귀는 한성숙 후보와 연관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겠지요?

○증인 오세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증인요, 조금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증인 오세윤 저희가 최인혁 CEO가 문제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사실 당시에 그 채용된 가해자가 원래 그전에 네이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요. 네이버와 넷마블에서 폭언·폭행·열차려 등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채용 당시에 전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최인혁 CEO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문제가 많다.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구성원들의 호소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뒤에 돌아오게 된 것이, 자꾸 이사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인혁 CEO가 억울하다고 이사회에 본인의 재심의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재심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해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임원들을 모아서.

그런데 그 해명 자료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사회의 지시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법무팀이, 사실 회사를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 줬고 이사회 의장이 그 해명 자리에 가서 동료의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돌아가시고 돌아올 수가 없는데 책임자가 돌아온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만약에 질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이런 대기업에서도 뭔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사회 이해진 의장의 복심이라고 그러고……

○김원이 위원 나중에 환경노동위에……

○위원장 이철규 말씀 계속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증인 오세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성원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원이 위원 제 건의 사항은 뭐냐 하면……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아니, 다 하셨대요.

○증인 오세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김원이 간사님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고.

그냥 계속하실 말씀 하시라고.

○증인 오세윤 아니, 그래서 중소기업을 잘 만들어 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기업에서도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 그런 이사회에 누가 요청한다고 해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만약에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증인 오세윤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냥 계속 5분 다 쓰실 겁니까? 몇 분 하실래요?

○나경원 위원 제가 쓰고 나중에, 5분 다 써도 되고요.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그 가해자가 복귀했지요? 그리고 2019년 5월 17일쯤에 고인과 14명 정도가 최인혁 CEO를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고인이 사망하기 두 달 전에 네이버의 글로벌 최고책임자인 이해진 의장과 그리고 한성숙 대표와 직원 간의 간담회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증인 오세윤 며칠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2021년 3월 4일.

○증인 오세윤 예, 아까 이야기 나왔던.

○나경원 위원 간담회 있었지요?

○증인 오세윤 예.

○나경원 위원 그 간담회에서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이 이야기, 그러니까 ‘책임리더는 어떻게 뽑느냐?’하면서 ‘연판장을 돌려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리더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증인 오세윤 당시 간담회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질문한 건 맞는데요 사실 질문은 이러한 책임리더 선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책임리더 선임 시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오세윤 잠시만요. 연판장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나경원 위원 그러면 문제를 있는 사람을 책임리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경영진을 찾아갔음……

○증인 오세윤 아, 연판장 이야기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연판장 이야기 있었다는 거지요?

○증인 오세윤 예,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간담회에서?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연판장 얘기도 하고 경영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책임리더가 됐다. 그러니 책임리더는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오세윤 예,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맞고.

○나경원 위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두고……

○증인 오세윤 예, 않았고. 그 사람을 염두에 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은 맞지만 질문 자체는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임 과정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키기는 했지만 연판장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책임경영자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말한 것 맞지요?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때 회사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기했는데 일반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이 정말 있었느냐’ 하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까?

○증인 오세윤 사실 그전에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 거론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 최인혁 CEO에게 사실 직접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때는 최인혁 CEO한테 했지만 이 간담회에 이해진 의장과 한성숙 대표가 있었던 건 맞지요?

○증인 오세윤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맞고. 연판장 이야기도 했었고 경영진 찾아갔다는 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에서는 아무런 추가 조치는 없었다. 맞지요?

○증인 오세윤 이후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정확히 지침이 됐는데 최고운영책임자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특별근로감독이 나온 것은 고인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이후였지요?

○증인 오세윤 그렇지요.

○나경원 위원 아까 한성숙 후보께서는 간담회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연판장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경영진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이 증인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한성숙 후보자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철규 예.

○나경원 위원 한성숙 후보자, 지금 증인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일반론만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셨던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기억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 들었던 거는 책임리더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문제를 체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 연판장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못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증인의 이야기와 후보자의 이야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내시든지요. 증인의 이야기가 맞다면 후보자는 대표로서 그 당시에 추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고인의 죽음을 분명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바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예,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날의 질문이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연판장 이야기까지 나왔다면 저희 HR 책임자가 그렇게 한가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포함해서 경영진들이 다 같이 있던 자리에서 저희가 직원들하고의 간담회였는데 거기서 그걸 들은 직원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책임리더들을 어떻게 채용하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역시 HR 담당 임원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의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참석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연판장이 나왔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기밀도 아니고 재판받는 사법 수사라든가 재판기록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로 간단한 것은 아마 회의록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신청하신 분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우선 오세윤 증인님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증인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환노위 시절에 이 국정감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 전체를 다 읽어 보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 제가 증인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간담회 아니었습니까?

○**증인 오세윤** 그런데 그 간담회 자체가 그런 주제의 간담회가 아니었고요. 그냥 당시

에 저희 보상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영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간담회였고 그중에 하나의 질문으로 그 질문이 나왔고 주요 많은 질문들은 사실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질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노사 회의할 때 다른 주제가 상당히 많겠지만, 특히 인사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서도?

○**증인 오세윤** 당시에 그 조직에 계시던 분이 그분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계속해서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임원으로 승진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 아마 답변하던 그 HR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답변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김성원 위원** 아니, 모르고 답변할 수도 없지요, 사실은.

○**증인 오세윤** 회사가 워낙 크니까 아마.....

○**김성원 위원** 그래도.

○**증인 오세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마.....

○**김성원 위원** 후보자님, 이 사안은요 간단한 거예요. 후보자님이 강력하게 네이버에다가 ‘그 회의록 주세요’ 하면 돼요.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회사.....

○**김성원 위원** 그것 무슨 회사 기밀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의록인데 그것 후보자가 지금 ‘나 이렇게 결백하고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이버에 요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오세윤 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사협의회상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일반적인 질문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책임리더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HR 임원도 그 특정인에 대한 인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요, 그것은 후보자의 판단이고. 그때 회의록을 달라고 네이버에 강력하게 요청하시래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것은 회사의 판단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회사의 판단이지마는 후보자가 ‘나 이것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돼요.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후보자님, 이게 여기서 어차피 안 되면 나중에 국정감사 때 또다시 결국은 회사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간단한 건데 숨길 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신문하실 분 계신가요?

증인 신문하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오세윤**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증인 오세윤** 사실 네이버라고 하면 굉장히 수평한 조직문화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일반 회사보다 좀 나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게 많고 저희가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 사람 물러나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건 굉장히 네이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구성원들의 그런 눈물 어린 호소를 거부했던 그분이 다시 지금 네이버에 돌아와서 굉장히 구성원들이 지금 되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 강국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AI 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 출신 인사를 채용하고 하는 인사는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런 토대를 만들어도 일하는 사람이 잘 일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수직적인 어떤 조직문화의 상징인 최인혁 대표가 돌아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대통령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신문하실 거예요?

○**김원이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는, 오늘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인혁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데,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 한성숙 후보자가 혹시라도 관여하거나……

○**증인 오세윤**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대표로서 해 왔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 당시 대표 시절에 들어왔나요?

○**증인 오세윤** 아니아니요, 아닙니다.

○**허성무 위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징계를 안 했지요. 징계를 안 했잖아요.

○**김원이 위원** 징계했잖아요. 사임했잖아요, 당시에.

○**허성무 위원** 그것을 계속 그렇게 유도신문하고 있어요?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나경원 위원** 사임을 했지 징계를 안 했지요.

○**김원이 위원** 당시 사임하고 이번의 복귀 과정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다시 질문을……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징계를 안 했지요, 한성숙 대표가.

○**허성무 위원** 좀 그만하지요,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해.

○김원이 위원 노조 위원장은 이제 가라 하시고요.

○위원장 이철규 질의를 마치려 했는데……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신문? 증인 신문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쁜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 신문에 응해 주신 오세윤 증인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오세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퇴장하셨나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문을 할 때 서로 여야 간에 듣기가 불편하고 거북한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도중에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신문을 방해하거나 또는 질문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렇게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 질문 발언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발언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달라고 하니까 1분만 드리세요.

○김원이 위원 네이버의 최인혁 CEO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한성숙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오세윤 네이버 노조 위원장이 하는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네이버 이사회 관계자와 노조 위원장 등을 불러서 환경노동위에서 다루면 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환경노동위에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윤 노조 위원장 말 따라서 최인혁의 복귀는 한성숙 후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믿고 그쪽에다 이 문제를 이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1분간……

○위원장 이철규 다음, 강승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세요.

○강승규 위원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최인혁 이사, 증인 오늘 불출석했고 오세윤 증인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는 다 이 자살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임원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정계 또는 여러 가지 책임 차원에서 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그런 후보자가 중소기업을 다루는 장관후보자로 있기 때문에 오세윤 증인 생각에 따르면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졌는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인혁이라는 분이 네이버에 다시 복귀를 했다는 것은 네이버의 그 당시 여러 조치들이 허울 좋은, 빛 좋은 그런 것이었다, 눈 가지고 아옹 식이었고. 그렇다면 한성숙

후보자의 그동안 네이버 경영 여러 가지 실적도 그런 결과로 지금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도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한성숙 후보자가 회의록을 제출해 주면 중인의 중인 같은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마당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에 중인 채택에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후보자님, 아까 설명하실 때 중소기업이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면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셔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I라는 것이 결국은 품질경쟁력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일단 관건이 될 텐데요. AI의 품질경쟁력은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의 품질과 양은 결국은 규제완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AI의 가격경쟁력은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학습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회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가속력을 가지고 파격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고 이것은 이제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신다고 하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문제인데 전기요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산업용전기요금을 70% 이상 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물론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에너지 문제, 전기요금 문제를 떠나서 AI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상누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서 AI 생태계를 살리겠다라는 것은 저는 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국은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과 다른 관련된 책임자분들을 설득을 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AI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품질 부분은 특히나 각 분야별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의 상황과 내용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제별 베티컬 AI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범용 AI로 가기에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분야별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집중 포인트라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 에너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짧고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부분의 과제들이 진행되고 이걸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전통적 산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볼 부분이라 중소기업에 대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료 부분 어떻게 지원하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AI를 막연하게 생성형 AI라든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너무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기요금하고 얼마나 많이 이것이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22년에 70% 이상 오른 산업용전기요금 가지고 과연 이것이 피저빌리티(feasibility)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내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해법을 내시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까 한성숙 후보자를 상대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해서 과징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 업체들이나 또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처음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고 이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사과를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김성원 위원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꼭 해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과를 하고 하지 않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그것은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재판 얘기를 하셨지요? 그 재판의 당사자는 네이버입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말씀 안 하시거나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라고 네이버가 다툴 수도 있고 또는 과징금 액수가 과하다고 다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네이버의 일이고 한성숙 후보자가 네이버의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 답을 못 한다? 이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과연 한성숙 후보자가 중소·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으로서 적

합한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네이버의 이익을 염려해서 답변을 지금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과를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당시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사과하면 그 재판에서 네이버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라면 정말로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적합한 사람인지 저부터 의심이 들고 온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말씀 주신 부분에서 플랫폼사업자로서 중소상공인들이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냐 안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

○**박형수 위원**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을 보면 후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파트·단독주택·근생·오피스텔·토지, 후보자는 평생을 IT나 인터넷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분 아니에요? 전문성이 거기에 있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 구입을 했답니까?

이 중에서 저기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단독주택, 지금 2층 근생으로 되어 있는 삼청동 부분이 원래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다가 지금 용도를 변경하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2층 근생으로 변경한 저것은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저 건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로……

○**박형수 위원** 누구의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 남동생이 쓰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남동생이 어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냥 카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카페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와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카페는 연건동에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연건동에.

○**박형수 위원** 연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금 사무실을 삼청동에다가 놔뒀다? 이게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것 집을 구입할 때 2개가 별채로 붙어 있어서 같이 있는 거였고요.

○**박형수 위원** 일단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남동생은 지금 연건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무실

은 삼청동에 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저는 여전히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 사진 다른 것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아까 후보자님이 제출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후보자님이 제출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싱크대가 보입니다. 이 싱크대를 보면 이 싱크대는 사무실의 싱크대가 아닌 걸로 보여요. 주거용 건물의 싱크대로 보이거든요. 이 건물이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근본적인 목적이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부동산이 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따 제가 재보충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하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네이버 퇴사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후보자님께서 지금 네이버에 아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인혁 대표가 복귀하니 마니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후보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예전에는 관련이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유럽…… 네이버 대표를 그만둔 이후로는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전혀 없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동아 위원 아까 그리고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특정 책임리더를 언급했니 안 했니 그런 공방을 하시던데 나오신 증인께서도 본인들 속마음으로는 그분을 특정해서 했지만 일반론적인 얘기가 오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후보님하고의 기억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

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다면 저희 있던 임원들과 노사협의회 직원들이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까 나오신 증인 역시도 본인이 내심의 의사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일반론적인 얘기 질문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님, 벤처 창업 관련해서 미국의 유니콘 창업자의 한 4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유니콘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술창업기업 중에 외국인 기술창업기업이 0.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창업을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최근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중기부 자료들 검토하고 같이 내용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해외 유수한 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학교나 대학교에 유학도 많이 옵니다. 유학을 와서 그들이 창업까지 이어지고 그 창업을 한다면 단순히 외국인이 창업했다라고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창업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같이 교류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 이대 그리고 명지대 이런 굴지의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 관련된 시설이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서울대를 지방에 1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정책 따로 창업정책 따로 갈 게 아니라 대학가 중심으로 새롭게 벤처 창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지방에서도 더 많은 창업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분당에서의 많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창업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 부분은 장관 임명되면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농지 취득할 때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지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취득……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합법하게 취득하셨고 후보자님께서도 실제 경작을 하시다가 지금 네이

버 대표랑 유럽에 체류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대신,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될 농사를 가족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과거에 농지법 위반으로 낙마하신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토지가 개발되거나 개발될 예정인 토지를 미리 농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낙마하셨는데, 지금도 거기 가족분들이 경작하고 계시고 경작할 용도로 지금 취득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지금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투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직접 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촬영도 다 되어 있는데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언덕에 있어서 그것과는 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제가 어제인가요 배달 중심의 음식점을 하는 분을 만났더니 ‘배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이 올라가도 각종 중개수수료를 포함해서 한 삼사십 퍼센트 내고 그러고 나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배민이나 쿠팡 중심으로 하는 이 배달플랫폼들로 인해서 과도한 중개수수료 또 배달비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보통 큰 게 아니고 현상 유지하기 좀 어렵다 이런……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해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상생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상생안을 내놨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거꾸로 일부는 배달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수수료도 사실상 올라간 곳이 많고 그래서 상생협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추가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좀 짚어서 새로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약을 끌어낼 그런 의사는 없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배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 주시고 계셔서요 제가 관련 내용들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플랫폼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모로 다각도로 말씀 들어 보고 방안챙겨 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배달플랫폼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배달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한 2% 정도이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입장 업체나 음식점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중기부가 나서서 이런 공정배달앱을 좀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혜택을 볼 곳은 소상공인들일 것 같은데 중기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잘 챙겨 봐 주시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려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편에서는 디지털전환도 필요하고 또 경영의 안정과 활성화도 필요한데 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또 놓여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 사회안전망을 어떤 측면을 강화해야 될 거냐 그런 논의가 요즘에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특히 보니까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영의 위기 같은 문제도 있어요. 주로는 육아휴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고용자, 근로자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은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아파서 병원에 갈 경우에 실제로 영업이 안 되잖아요, 특히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병수당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는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서울시 같은 경우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영업을 지원할 때 이 안전망 문제를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항목별로, 자영업자 숫자가 지금 55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여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의 세대와 성별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어떤 안전망들이 필요한지를 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셨던 질의서 보고 여성을 위한 안전망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앞서 주질의 때 제가 플랫폼 기업의 경험을 가능한 한 잊어버리고 중기부장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보통 혁신의 총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산자와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인데,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승자독식 때문에 혁신을 방해하는, 거의 혁신 생태계의 장애물 이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특별히 더 좀 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검색광고, 카카오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가 친절하게 운전하는 가장 가까운 기사를 먼저 연결시켜 주면 이건 혁신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등록된 택시를 먼저 연결시켜 줘요.

배달의민족이 서비스가 좋고 음식 맛이 좋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업체를 제일 상단에 올려서 연결시켜 주면 이게 혁신 서비스가 돼요. 그런데 배달의민족에 돈 많이 내는, 광고료 많이 내는 업체를 상단에 올려 줘요. 이런 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유저들한테 필요한 좋은 정보, 많은 사람이 찾는 정보를 가장 앞장서서 검색을 시켜 주면 그게 혁신인데 검색광고라는 걸 만들어서 네이버에 광고료 제일 많이 내는 업체를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 줍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지대추구 경제입니다.

전 세계 플랫폼 기업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렇게 해서 다 성공 신화를 만들어 왔어요. 이 경험과 이 과거, 이 전철과 단절돼야 됩니다. 이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혁신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겁니다. 지대추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비생산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은 활동과 논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그 안에 줄 세워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혁신하겠어요? 돈 내고 커미션 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자릿세 많이 내고 가서 장사하는 게 룰인데. 이거를 깨야 됩니다, 아셨지요? 검색광고 할 때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검색광고가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일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마음에 잘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AI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중기부가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인데, ‘중기부는 AI 얘기 꺼내지도 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못 들어 봤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중기부에다가 AI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예산을 담자, 뭘 하자 그

려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해 와요. 기재부에서, 과기부에서 중기부는 AI의 ‘에’ 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안 그려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AI는 과기부만 해야 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AI 산업 구조에 대해서 소버린 AI,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이런 것은 다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 대항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우리 정부의 담당 부처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AI 서비스의 키워드가 에이전트, 디퓨전, 데이터,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 기업이, 이 AI 서비스가 앞으로 AI 주전장의 주종목이에요, 이게. 이게 월드컵 같은 겁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 수영, 육상 이게 저위에 있는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받고 승부가 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기업이 좌우하는 것인니까 이 세 가지는 중기부가 맡아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 역할을 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야 돼요, 기재부하고 과기부하고.

지금 처음 가자 마자 이 AI 주역 하려면 ‘중기부가 이것 맡아서 하겠다’, 왜? 이것은 기업의 일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적인 정책 구조, 지원 대책, 규제, 글로벌화 이것을 중기부가 맡아서 할 테니까 맡겨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정리 좀 하셔야 될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 넣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가 깔리고 근간이 깔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서비스단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전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서 어느 업계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활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잘해 왔고 AI 부분에서도 구축된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을 만약에 과기부나 기재부에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안 맞으면 직을 던져서라도 이것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것 하려고 중기부장관 하는 거예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오늘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후보자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 소유 종로구 건물 두 개의 연결 통로가 지자체의 증축 허가 없이 공사해서 불법 했다는 것은 아까 서일준 위원이 이야기해서 인정을 했고 또 현저히 낮은 금액에 해당 두 개의 건물과 후보자의 옆집까지 동생에게 임대하고 편법증여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2009년 구매한 경기 양평의 550평 규모 농지, 자경이나 위탁영농 없이 또 농지법 위반했고 이것도 불법입니다. 후보자 모친의 경기 양주 농지에는 불법건축물까지 있어서 농지법에 건축법까지 위반했고 불법입니다.

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여세를 채권으로 둔갑해서 중여세 탈루 의혹 까지……

후보자님, 후보자님 소유 건물부터 후보자와 가족의 농지에 이렇게 불법투성이인데, 장관후보자인데 준법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제가 앞쪽에서 제 양평 토지 관련된 부분들은 답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바로 이 화면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동만 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지금 특히 부친에게 상속받은 이것, 지금 화면 나오지요. 모친 농지 불법건축물에서 후보자 가족이 임대수입 받아온 정황이 있지요? 임대수입 얼마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월세 받고 있지 않고 아버님도 안 받고 어머님도 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받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이분, 인터뷰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계속 아버지가 진정을 넣으시면서 고생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서……

○정동만 위원 지금은 현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지금 그런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한번 보시지요. 최근 농지법 관련 뉴스 기사 한번 보시지요.

단순 농지 임대만 가지고 또 지금 수사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후보자 및 가족 농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농지법 위반 또 임대수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수입은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진정을 넣고 계신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들을 취해 갈 예정입니다.

○정동만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네이버가 포털 점유율 약 70% 정도 이상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 아까 보신 자료.....

○정동만 위원 다 합쳐도 네이버 못 따라가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6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네이버가 온라인상 강력한 대기업입니다. 뉴스도 쇼핑도, 많은 국민 일상에서 네이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때 네이버 스포츠 담당 이사가 외부 청탁받고 특정 언론사 기사 잘 안 보이게 한 사실 폭로했지요? 알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청탁받고 기사 숨기는 것, 반복되었다는 것, 공룡 포털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과문 공지하고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 전반을 고치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보시고 있는 네이버 화면처럼 뉴스는 아예 편집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정동만 위원 그때 청탁 사건 때는 해당 서비스 총괄책임자, 후보자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때는 대표이사였을 겁니다.

○정동만 위원 청탁 문자 받은 사람 정직 1년 받았는데 총괄책임자 다음에 대표이사 됐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2017년이면 제가 이미 대표였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온라인 대기업 갑질 부서 책임자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정동만 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중기부장관후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법성, 도덕성 모두 낙제입니다.

사퇴할 의향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뉴스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드렸고 그리고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를 다 개편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드릴 부분들은 사과드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바로 고쳐서 필요한 부분들에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은 다 세금을 납부한다거나 그리고 관련돼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에 소상공인·자영업이 766만 명,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중요한 경제 축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전담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상생연구실 일부 있고 소진공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시급한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리고 소진공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게 필요한 중장기 연구환경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이 좀 있어서 미래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중기원이 출연금이 없어 정부 보조금과 수탁과제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양질의 연구 인력 확보도 곤란하고 또 수탁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경영 트렌드에 맞는 미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 전담 연구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새로 출자하면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있는 데를 좀 강화해서 지원을 꼭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사회안전망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과 함께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인데요 지금 아주 낮은 수치지요? 디지털전환 수준이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 약간, 그것도 기기요.

그래서 첫째는 설치 비용도 초기 부담이 부담스럽고 중기부 정책이 업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게 운영에 관한 디지털 보급에 한하고 있지요,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오더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예산이 23년에 50%로 축소됐습니다, 70% 지원에서 50%로. 이것을 지원을 낮추면 안 된다, 빨리 디지털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의 솔루션 개발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I 기반의 경영에 필요한 창업 컨설팅, 상품 분석 그리고 마케팅, 판로 지원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화 단계에 진입하려면 성장형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 가능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 주셨던 소상공인의 중장기 전략과 이 부분이 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걸 꼭 좀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오세희 위원** 본인, 지금 후보자가 네이버에 관계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없습니다.

○**오세희 위원** 없으시지요? 오늘 네이버 얘기가 너무 나왔는데 물론 경력이라는 게 어디든지 거쳐 갈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현재 몸을 담고 있지 않은데, 물론 과거의 일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하고 너무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 아쉬운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우리가 과거 예도, 대한민국은 부모에 효라는 게 있잖아요. 내 집에 좀 부모님을 살 수 있게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애절한 부모님에 대한 효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너무 잣대로만, 물론 그런 것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부모라는 거, 동생이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약간의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너무 나온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금 네이버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에 대한 것들이, 부동산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하나 띄워 주시지요.

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재임 중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질문을 드렸더니 ‘AI 강국 도약,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소상공인 보호·육성’ 이렇게 저희 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도 많은 위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다 답변을 주셨는데, 엠파스 벤처기업 창업하시고 네이버라는 국민 플랫폼 기업을 경영한 노하우를 생각한다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진입이야말로 후보자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벤처 관련해서 국가별 투자 규모 순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는 주로 6위에서 5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위의 1·2·3·4위는 미국·중국·영국·인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의 도시별 경쟁력을 보면 한 8위 정도인가요? 이 정도 나와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좋은 수치예요.

그런데 국가별 벤처투자 규모를 살펴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요, 미국·중국은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고. 우리가 4대 강국으로 가겠다는데 4위와 3위를 바꿔서 경쟁하고 있는 영국과 인도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절반 수준밖에, 민간과 국가가 투자하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인도를 제치고 우리가 4위로 올라서려면 여러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최소 투자 규모에서 지금의 2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 주셨던, 오늘 말씀 주셨던 사항들 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좀 적극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인도와 영국에 들어가 있는 투자도 모두 다 자국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투자금들도 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투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커 가면서 해외투자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유출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 모이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투자가 되어야지 글로벌하게 네트워킹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 잘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국내외의 모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유치해서 글로벌 4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 제로페이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장관님?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목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다른데……

제가 서면질의했는데 보내오신 답변에 의하면……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물었어요, 제로페이 법제화에 대한 입장. 그랬더니 두 번째 네모에 ‘다만 간편결제 시장은 이미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로 특정 페이에 대해 법제화 시 민간 페이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민간 페이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제로페이는. 이름만 페이라고 붙인 거지 사실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기부가 그동안 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전국에 200만 가입자를, 가맹점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보급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이것을 뭉겠어요. 오히려 약화시키고 없는 자식 취급한 거지요.

저는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주창했던 사람이 박원순 전 시장님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남에서 처음 시범사업 할 때 제가 창원시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맡아서 했고 가맹점을 가입시키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온갖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거거든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현재 가맹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실제 연간 8억 미만의 매출을 가진 중소·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지요.

이것 법제화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찾아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챙겨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어떻습니까, 힘드시지요? 공적 자리가 이런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허종식 위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에 이어서 저도 벤처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그립니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이시잖아요, IT도 1세대 전문가시고. 그리고 또 성공하신 기업인이시고.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벤처 열풍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 잘한 건 아니고 돈 페 준다, 도덕적해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그게 우리를 정말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도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단 기자간담회 때 ‘제삼의 벤처 붐을 통해 4세대 벤처기업을 키워 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길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지금 연 40조 투자를 해서 4대 벤처 강국으로 가시겠다, 본인의 장점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우리 국민들도 기대가 있을 거고 특히나 젊은 층도 호응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세우시면……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말씀 주셔서 저도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희가 정책과제 2개 정도 받아서 그 시절에 연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 IT 기업들에 대해서 거품이다 이런 말씀도 많으셨는데 저는 어떤 산업이 커질 때, 붐이 일어날 때 당연히 거품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니까요.

○**허종식 위원** 다 성공하면 벤처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뿌려졌을 때 길러진 또 많은 수많은 인력들이 그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초반에 많은 부분 창업과 관련된 지원들이 마중물로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허종식 위원** 이것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신 있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잘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이것만 잘하셔도 저희들이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소상공인·재래시장.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후보님께서 지난해 전통시장을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물론 안 가실 수 있지요, 대형마트만 갔다 오실 수도 있고 바쁘고 이러시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재래시장 갔을 때…… 시장 가잖아요. 주차장이 있고 또 시설이 깨끗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이나 물품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보고는 중간에 뭘 좀 먹거나 차 한잔 마실 장소도 있고 또 많이 샀을 경우에는 배달도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재래시장이 갖춰졌다면 아마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현실은 어떤지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립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어제 촬영한 인천의 가장 큰 신기시장하고 현대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전선줄 보이시지요? 우리 정부가 지금 장관후보님을 포함하여 디지털전환하겠다—DX—AI로 전환하겠다—AX—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것 가지고 가히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어제 찍은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똑같습니다. ‘고장’ 써진 게 화장실입니다. 안전이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것을 정부는 자치단체로 넘겼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덜하다’, 자치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넘겨 보세요.

불났습니다. 되게 화재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23년 3월에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47곳이 전소가 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12억 정도 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보니까 이런 정도의 107억 정도, 발생이 한 284건에 107억 정도의 화재가 났는데.

한번 넘겨 보세요.

아까 불난 데를 이렇게 정비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깨끗이 정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디지털도 좋고 AI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AI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 되더라. 한번 좀 자주 가 보세요. 한 번도 안갔다 이렇게 지적받지 마시고 자주 가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결제가 0원이고 2024년에 유럽에 있기도 했지만 서울에 나오면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새마을시장, 엄마가 살고 계신 아파트 근처가 송파여서 새마을시장에 갑니다. 새마을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인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은 저렇게 현대화 과정이 거쳐져 있어서 저희 집도 거기서 장을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좀 해 봤는데 잘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생선 같은 경우는 잘되지 않지만 반찬처럼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배달이 가능한 부분들은 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의 공실률입니다. 남대문 16.5%, 청담동 9.6%, 강남 15%, 지방을 보면 경주 25%, 부산 25%, 대구 20.8%,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 지역구에는 한 집 건너 세 집이 공실입니다. 서울·지방 할 것 없이 이렇게 골목상권, 오프라인 상권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네이버 재직 시절에 만들었던 스마트스토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만들 때는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에 판로를 가졌으면 했고요.

○**서일준 위원** 결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상권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맞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오프라인 상권 몰락이 단순히 점포 폐업으로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 재산목록을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이시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말씀은.....

○**서일준 위원** 전문가이시던데 지금 점포가 폐점을 하고 나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보니까 건물도 많으시고 토지도 많으시던데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가진 부동산들은 제가 살던 아파트하고 지금 있는 삼청동이고요. 숫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작은 별채들이 묶여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단순히 점포가 폐업이 되면, 폐점이 되면 그 후속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

○**서일준 위원** 공실이 장기화되면요 지역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상가 주인들도 그 상가를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받았는데 이 대출도 부실화되면 결국은 금융권까지,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순환연속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고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 닫으라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들이랑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일준 위원** 이 정책 시행하면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고용부 발표에 1조 37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되어 가지고 골목상권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중기부장관후보자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의 방향성 부분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업계의……

○**서일준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법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 법정휴무하지요? 그러면 온라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 그게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한테도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부분은 소비자 편익과 여러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청문회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안심이 되는 게 처음에 좀 얹어 있으셨거든요. 가면 갈수록 팬찮아지시네요, 자신감도 생기시고. 저는 그런 자신감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한 10년, 15년 전, 그 이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기부에 지역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30년 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5개년 국가경제개발계획 같은 것 만들 때는 사실 중소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그 산업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 대도시들도 새로운 혁신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과 생각들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생태계에 대한,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매핑이라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대전만 해도 처음에 창업 같은 것들은 사실 대전은

되게 많이 잘되는 편입니다, 카이스트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워낙 훌륭한 과학기술 자원들이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뒤지지 않을 만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서울·판교가 더 많지요. 그런데 시리즈 A 정도 할 때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300억, 1000억 단위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대전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느냐? 짐작하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적습니다.

○**장철민 위원**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억 단위 투자를 받는 회사가 한 100개 정도 있다? 한 팔구십 % 다 서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그러면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해서 생장하면서 시리즈 A·B·C·D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생장 단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 서울과 판교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매핑과 정확한 진단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보자라는 그 구상들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가 결과를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런 쪽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유능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매핑하고 추적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제안 하나.

또 하나는 결국은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정책과제를 다루어 가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동일하게 수도권과 지방에 할 때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아까 내일채움공제 얘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딱 성과평가할 때 보면 거의 다 서울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일 조건을 제시하고 동일하게 부여하면 사실은 수도권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다 서울에서 활용됩니다.

중기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됐든 아니면 모태펀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이든 지역에 더 나은 조건, 더 열려져 있는 조건 그리고 더 나은 혜택들을 부여할 때 사실은 지역 생태계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제대로 매핑하자 그리고 지원할 때 확실하게 지역에 우호적인 설계를 해 나가자,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지역 생태계를 살리는 관점에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그냥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R&D 삭감한 것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장철민 위원** 잘 알고 계실 텐데, 중기부 R&D 관련돼서도 혹시 얼마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장철민 위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시겠지만 22.7%가 날아갔었습니다, 22.7%. 금액으로 따지면 4000억이 넘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데 방해가 좀 많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잠깐 스톱하고요, 스톱하고.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철민 위원 제가 사실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방해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뮤어 봤으니까 그냥 진행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방해된 게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할 때 시간이 좀 흘러가 가지고요.

○위원장 이철규 예, 계속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질의하고 싶었는데.

R&D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22%가 날아가서 4000억이 넘게 줄었어요. 그게 그냥 돈만 줄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삭감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제.

실제로 900개 정도의 기업이 R&D가 중단돼서, 어떻게 저렇게 됐든 이 R&D 했어야 됐잖아요. 아까 후보자님도 엠파스 이런, 짚은 시절에 정책과제 했었다는 얘기 말씀하셨었는데 3000억 정도를 어떻게든 대출받고 막 근근이 버텨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마무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포기한 기업들도 150개 이상이 돼요. 정책과제 포기한 기업들이요.

사실은 이 문제가 후보자님한테는 너무나 큰 과제예요, 이 기업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과제. 그리고 이러면서 상실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지금 답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다시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와 그리고 기재부든 다른 재정 당국과 바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앞엣것까지 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서울에 투자된 전체적인 세금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돈을 다 생각한다면 지방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많은 부분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물론 한국의 규모로 봤을 때 서울과 일일생활권 속에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끔 부분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놓으면 당연하게 서울에서 많은 결과가 나오

그리고 아까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이익에 반하고…… 그게 사실 성과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행적으로 들어가는 사후적 보완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의 앞단에서 좀 투입해야 될 부분들을 지역을 큰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하나하고.

그리고 R&D 정책과제가 중단되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제대로 지속적으로 가야 하고 어떤 부분들은 왜 중단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언제까지 하려고요? 어디까지, 몇 시까지?

○**김원이 위원** 그만하자는 데요. 밥 먹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까지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시간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지역과 관련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의 하나가 지역 권역별 창업거점 구축하고 또 지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만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권역별로 기술대학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중요하게 관련된 기술대학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에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당연하게 창업하면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시장이 위낙…… 사실은 인터넷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과의 경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진욱 위원**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진욱 위원** 앞으로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관이 되시면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고 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 1위가 K-뷰티였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K-뷰티를 비롯한 소프트파워를 우리가 수출하는 이

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사실 K-뷰티뿐만 아니라 한국의 컬처 관련된 산업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너무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만나면 부산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놀랐던 것이 서울은 다 알줄 알았는데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여행지로 좋고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유럽 친구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마침 와서 중기부 자료를 보면서 3년 만에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왔고 이것의 성장률이 지금 30% 정도 됩니다, 1년.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물론 업계가 굉장히 잘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느 기사를 보니 제일 처음에 정부가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는 정책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 그 이후로 업계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와서 모범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그리고 앞에서 빠르게 유통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잘 형성되면 수출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진욱 위원 이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요. 저 개인적 경험으로도 일본의 아주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올 10월에 K-뷰티 주간을 만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프트파워 굉장히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태펀드가 30년을 기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저도 관련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3의 벤처 블, 제2라고 하든 3이라고 하든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활력 또 성장의 모멘텀은 결국 스타트업을 통해서 수많은 벤처들이 나옴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3의 벤처 블을 한성숙 장관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3의 벤처 블을 만드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본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AI 시대에는 투자들이 작은 규모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결국은 큰 자본이 들어갈 텐데 이 큰 자본을 중소기업 내지는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주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기부 금년도 예산 얼마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올해 15조이고 추경 합쳐서 20조 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자영업자 수는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자영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6만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더 많을 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소상공인을 합치면 766만이고요.

○이종배 위원 소상공인까지는 그렇고.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고용 중에서 얼마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한 2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종배 위원 얼마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20% 정도 되는 걸로……

○이종배 위원 20% 좀 넘을 것 같은데요. 23년도 기준…… OECD보다도 높고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보다는 훨씬 높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고령화 문제 아시지요? 50세 이상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50세 이상하고 60세 이상, 50세 이상이 37%, 60세 이상은 36%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가 한 70%가 넘습니다, 50세 이상이.

개인사업자들 대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정확한 금액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출 때문에 좀 공부는 하셨어야 되는데.

1123.8조, 지난해 3/4분기에 그렇고요. 연체율이 12.4%인데 12년 내에 가장 연체율이 높습니다.

연간 폐업 숫자는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100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통시장 자주 방문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자주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회 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용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귀국해서 제가 계동 놀러 갔다가—동네여서요—거기 계신 그 가족분이……

○이종배 위원 구매하신 게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금액은 30만 원 충전해서 한 반 정도……

○이종배 위원 뭐로 하셨어요? 모바일로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저 모바일로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금년도에 당초에 5.5조였었지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 쓰이는 게 한 3조,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자꾸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이든지.

이제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를 진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수가 장기화되니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당?

○**이종배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전체 예산이요? 13조 정도……

○**이종배 위원** 13.5조.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관련해서 집행 관련된 안내가 곧 나가고 저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이것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수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종배 위원** KDI 등에서 나온 게 한 30%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 주변을 봐도……

○**이종배 위원** 주변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죄송합니다. 숫자까지……

○**이종배 위원** 소상공인 원금 탕감 이건 캠코 배드뱅크에서 하는 거지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이것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 전체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잘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기억 못 합니다.

○**이종배 위원** 거기까지 공부 못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 그러더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기억은 했는데 지금 숫자가 많아서 머릿속에서 헷갈립니다.

○**이종배 위원**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안 가르쳐 주고요.

중기부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조정, 탕감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정위에 보고한 것 있지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코로나 정책자금 관련 질문 주신 거지요?

○**이종배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저희가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

는 부분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원금 탕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도덕적 해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이 물가에 영향 미칠 것도 잘 알고 국채 증가가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국채 얼마나 증가돼요, 이번에 2차 추경이? 공부 못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종배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부동산 전문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시지 않던데 수립이라는 업태,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태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면 등록 시 혜택이 취득세, 등록세 또 그런 감면을 받고 재산세 조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물론 감면을 받게 되고. 그런 혜택들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SNS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비주거용 소유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폐업 여부는 후보자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그리고 2016년도에 남동생에게 채권채무관계로 2억 4500 빌려주시고 22년, 그러니까 5년 지난 22년부터 이자를 받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중여세 부분을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5년 동안 받지 못하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구자근 위원** 재산 이동 관련해서 보면 그 이자를 받지 못한 그 시기에 남동생이 2020년 11월에 안양 평촌 소재 아파트 현찰로, 시세로 10억 6000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담보가 없이 구입했다는 말씀드리며 아주 독특한 재산 형성과 가족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봐도 저희들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다, 탈세를 위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뭐 이 부분 절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꼬이게 되는 것, 이 부분 역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영농계획서 허위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에 ‘예’라고 답변하

셨는데 사실입니까? 실수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대리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 아니, 참 무책임하신 거잖아요. 대리인이 작성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구자근 위원** 어느 대리인이 위임자의 허락 없이, 위임자와 상의 없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경우를 보면 군청,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 허위로 유리한 직업으로 사실은 바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 네이버의 이사로 재직했는데 자영으로 했던 부분은 틀림없는 허위 작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작성했던 어떻든 간에 그걸 피해 가고 싶다면,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해 가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구자근 위원** 아니, 확인 못 한다는 부분이…… 좋습니다.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그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하실지 충분히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 부분 송구스럽게……

○**구자근 위원** 또 이 농지법 위반 사실이 실질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57조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을 속인 부분,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면)

이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영 의지가, 자영 의지가 없음이 입증이 되면 등기이전을 마쳤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지금 PPT에 나옵니다만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16년 전이라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ري면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사과하시고 농지는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취득 과정에서 직접 자영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위반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뒤쪽의 제가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서류 작성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내용들에 맞게 위탁경영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근 위원**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그 무책임한 답변을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가 후보자를 누가 괴롭히고 뭐 하려고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잠시 전에 보니까 우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발뺌하시다 보면 나중에 발목이 잡혀요.

지금 후보자님 토지 농지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농지가요? 위탁경영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법적인 검토해서 매각이든 여러 방안들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매각은 몰라도 위탁경영을 하시려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건 위탁경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자경을 하려고 샀던 농지를 위탁경영한다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되면 위탁경영을 할 수 있겠지요, 직접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위탁경영이 안 되는 것으로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 부분은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셔서 하고 이 부분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거 가지고 무슨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후보자의 자격을 있다 없다 이렇게 추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토지 농지 사는 게 잘못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다 샀습니다. 위장전입도 문제없었습니다. 왜? 주민등록을 어디다 하기만 하면 팬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위장전입을 하면 안 된다 또한 농지를 편법 매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공감대로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모시는 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미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악의적으로 무슨 재산을 편법으로 빼돌리려고 했다든가 할 때 비난받을 일이지 부모님을 봉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중여세를 포탈했느니 중여세 부과 대상이니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양평 농지는 어찌 보면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과하시고 이거 처분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관련해서 처분하는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처분하십시오. 이거 하시고, 이거는 장관이 되시더라도 수도권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취득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 사과하신 걸로 하고 그다음에

처분하시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천안을의 이재관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닙니다.

○이재관 위원 벤처·스타트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어떤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도권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을 보면 전체 투자의 한 20%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비중은 40% 정도,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보다도 실제 벤처·스타트업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지역균형, 어떤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 비수도권과 전통 제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지역 할당 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신 것처럼 판교에 테크노, 게임,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면서,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인재를 서로 채용하는 것도 좋고 하다 보니 그쪽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똑같이 어느 지역에 집적해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쿼터를 둔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어떤 지역으로 창업 회사들이 모이는 것이 전체적인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에서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하나의 어떤 정책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벤처 생태계도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어떤 그러한 기업체가 있을 때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에서도 지역 할당 제를 좀 합리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 디지털전환과 관련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산업 분야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인데 관련된 자료를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AI 활용률을 보면 수도권이 한 40%, 비수도권이 17.9% 또 거기에 대기업은 한 48.8%, 중소기업 28.7%, 그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AI 기술을, 제조혁신의 어떤 AI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기업체들의 인식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맡겨서 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중기중앙회에 갔을 때도 그 관련된 협회장, 회장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적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적용할 여력도 안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된 계획안에 그걸 수행할 AX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거고 거기에 좋은 개발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야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후보자님, 오늘 정책질의를 들어도, 저는 사실은 후보자님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된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코칭을 좀 잘못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내고 이러지는 않을게요. 제가 그냥 알려 드릴게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한 100만 명, 폐업률 9%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우리 95년 통계 이후로 진짜 이런 것을 돌파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사실 폐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단박에 말씀드릴 수준에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 데이터 말씀 주신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처음으로 50% 넘게가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데이터로……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지요, 운영을 하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라도 써야지 된다라는 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CEO 입장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국무위원후보자 입장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도 위원님 질의 주신 중에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나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마트스토어 테스트를 하면서도 초기 사업자분들께 마케팅 비용을 좀 드리면서 후원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동작돼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볼 테고.

두 번째는 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단기알바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맞습니까, 소득이 맞습니까? 단기알바에 대한 고용보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

○김성원 위원 아니, 이것 얼마 전에 중기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원래 단기알바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었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바꿔요. 이게 벌써 지금 소비쿠폰 지급 발표한 후에 바로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요,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들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냥……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광상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실 경제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사업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기업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대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이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위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업 진행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어렵게 되는, 중소기업이 고충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근무했지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은 네이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조사해서 최종 처분에 이른 사건만 해도 10개에나 됩니다. 그리고 최종 처분의 내용을 보면 시정권고, 시정명령은 당연하고 과태료,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징금의 내용 중에서는 26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그중에서 대기업 형태의 사업자가 실제 민간 영역에서 사업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행위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도 있고 그중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도 있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도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한 행위도 있고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도 있습니다. 다 네이버가 한 행위들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곽상언 위원** 이렇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실 경제 생태계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부당한 거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어요.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플랫폼 기업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어떤 고충을 겪는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봐요. 후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마련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 질문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적·

행정적 제재 강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곽상언 위원** 아까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그 구조적 문제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를 말씀 주셔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무래도 양 사 간의 계약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품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관계 속에, 갑을관계 속에 놓여진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숙제를 안 해 오셨네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처분을 했는데, 대표이사 재직하실 동안 10개 처분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그 처분 이후에 그런 문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수정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은 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 다시 올려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저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공정위에서 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님, 오후에 제가 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후보자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분위기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규모가 커서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상장이 안 되는 사이즈의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가 됐다, 시작부터 거의 유니콘기업 사이즈들도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기는 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 회사들에 대한 투자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후보자께 질의드린 부분이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확대를 고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하신 게 민간과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여쭈고 싶은데 그래서 민간투자는 어떻게 늘리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 관련된 부분에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현재 세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벤처캐피털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세제 혜택을 늘리면 민간에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투자를 받아 보시기도 했고 투자를 하시는 네이버에서도 계셨으니까, 세제가 늘어나면 민간투자가 늘어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러니까 민간투자 부분은 유망한 회사들에 투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엑시트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것이 벤처 쪽 투자자들일 거고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이 인수하거나 했을 때에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하는 경우일 때 투자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중기부에서 민간투자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서로 상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게 중기부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희가 영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민간투자를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AI 스마트 제조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중소기업들도 좀,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민간투자 늘리면 좋겠는데 지난 정부 지난 정부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민간 회사들이 수익성이 없고 엑시트가 쉽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어렵지요.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고,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다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는 세제 혜택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엑시트 구조가 좀 제한적이어서 민간들이 투자하게 되면 자금이 대개 물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상장 특례라든지 M&A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책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 확대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연기금이 뭐, 어떤 걸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모태펀드에 투입되고 있는 연기금의 비중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김한규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많아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어요, 위험하다. 지금 위험자산 70% 까지 퇴직연금은 되거든요. 그런데 비상장회사는 안 돼요.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연기금은 현재 제도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관련된 이 부분은 현재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도 고쳐야 되고 또……

○**김한규 위원** 아니요, 후보자의 생각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 제 생각이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 거라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펀드가 돌아가고 있는 수익률을 보니까 한 8%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펀드들이 돌아가도 그것보다 한 1%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8%라면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돌아가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해외에서도 퇴직연금 관련돼서 벤처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해외투자자들 나가서 봤을 때도 이런 해외투자자들 퇴직연금 혹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네이버에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추가로 잠깐만 더 말씀드려도……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더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까 세제 말씀드린 건 오전에 액시트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나머지 또, 더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플랫폼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 일상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아예 플랫폼 시민이라고 개념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독과점, 갑질 이런 게 있다면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플랫폼 시민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이 노력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플랫폼 중심의 급격한 시장 변화 때문에 이 시장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지요. 플랫폼 밖에 있으면 얼어 죽고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갖가지 방식의 수의 탈취로 인해서 말라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배달앱 관련 총수수료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데,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래서 이 총수수료가 일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실질적 플랫폼 이용 총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자영업단체들 평가로는 총수수료율이 한 30~50%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과도하다 이런 우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네이버 CEO 재직 당시에 이와 관련한 유사한 플랫폼 수익 구조하고 수수료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운용한 경험도 있으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맡게 되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 입점 업체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하고 거래조건 공정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거나 타 부처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현재 배달앱 이용 시에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배달앱에서는 일종의 여러 항목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각의 비용이 다 지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구별해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서, 마치 각각의 비용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제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지 또 그것이 전체 수익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보공개는 또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개, 1개 항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하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낮추면 다른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작년 상생협의체 과정에서도 현실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전체를 묶어서 총수수료 상한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과거 경험까지 포함해서 어떤 판단이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수수료 관련해서는 사실 저보다 더 많은 부분, 자료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상한제라는 것이 뉴욕에서 만들어져 있는 수수료 상한제를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꽤나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몇 %가 적절하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 서비스수수료, 그리고 어떤 항목들의 수수료들이 있는지……

지금 외국에서 쓰이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항목별로 한국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제대로 좀 비교를 해 보고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서비스 업체들의 것이고 어떤 것은 결제 항목들인지 하는 부분들 좀 더 파서 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상한제 이런 게 좀 경직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이 수수료율이 너무 과도하게 여러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R&D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내내 R&D 예산 삭감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중기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기부 예산은 매년 늘어났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R&D 예산이 늘었지만 예산 폭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D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 여파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도 포기한 중소기업 R&D 과제가 196개, 이전 3년 평균이 46.7개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작년 한 해만 4배 이상 는 거거든요. 이렇게 R&D 과제를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매몰비용이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창업 기업들의 도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R&D 예산 지원을 다시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동의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중요성을 아마, 제가 보니까 네이버 CEO로 재직하실 때 매출의 25% 이상을 R&D 투자를 매년 하셨더라고요. 이 기술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셨던 그 경험을 접목하셔서 중소기업 R&D 지원을 꼭 정상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중소·벤처기업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히 또 여러 가지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로 기후테크 분야를 보면요, 앞서 R&D 지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부 기후테크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91.6%가량 감소했거든요. 전체 예산이 14% 감소할 동안에 기후테크 분야만 이렇게 감소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취임하신다면 원인을 잘 살펴서, 특히 우리나라 성장동력 발굴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살펴봐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 내용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과제가 중단됐다는 196개 리스트도 한번 봐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상황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그래서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관련해서 요구받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예산을 써 온 것을 보면 필요한 부분만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23년에 설비, 컨설팅, 금융, 인식 제고, 인프라 지원을 하는 데 3386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이게 지원이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사실 ESG 경영 확대되고 여러 가지 탄소국경제도라든지 공급망 실사법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요구사항은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지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부분은 사실 EU에 수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미리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내용 파악해 보고요. 말씀하신 지출되는 예산의 항목들과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과거에 사실 중소기업부가 이 분야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수요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유의 이유를 대면서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예산의 규모도 사실 무역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후보님,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고 답변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바로 그날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고민 좀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며칠 만에 답변하셨습니까?

본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장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고민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AI 전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벤처 전문가이시고 또 AI나 디지털 플랫폼 뭐 온라인,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반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중기부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무슨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이고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5개의 소상공인이 있고 종

사자 수는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1160조인데 전체 총매출액 보면 그래도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출신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이런 산업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역대 장관들께서 다들 폐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구조 전환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리만 보전하다가 다 떠났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을 활용……

○**박성민 위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전국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성민 위원** 130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점포 수는 2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인가 시장이나 점포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가 됩니다.

이런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구매, 사실상 기업형 유통점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잠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식료품 네이버로 주로 구입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전에 했을 때 네이버 산지 직송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통시장은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시간이 될 때는 나갑니다. 새마을시장도 가고 통인시장 가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뭐 그런 데 신경 쓸 새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조금 전에 전통시장에서 지난번에 상품권 써 보셨다고 하셨지요, 온라인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온누리상품권……

○**박성민 위원**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성민 위원** 30만 원어치 구매해서 17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4월 초에 귀국해서……

○**박성민 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돌려받는 영수증은 보관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영수증 아니고 모바일로 되어 있어서 모바일에 거래내역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영수증 발행 안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45% 소매점과 100만 명 폐업 중에 음식점·소매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입니다. 사업 부진이 그렇고 한데……

그래서 이런 서민들이 봤을 때 물론 기업인들은 재산이 많고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공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오히려 돈이 많은 게 국민들로부터 또 서민들로부터 오히려 부담스럽고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재산도 많고 하는데 과연 우리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하여튼 각오를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나머지 시간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후보님, 방금 박성민 간사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후보님을 위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일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이버로부터 스톡옵션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얼마 정도? 10만 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10만 주입니다.

○**김원이 위원** 10만 주 중에 6만 주는 옵션 행사해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만 주는 어떻게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나머지 4만 주는 퇴임과 함께 자동으로 포기되는 거여서……

○**김원이 위원** 소멸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거는 자동으로 포기됩니다.

○**김원이 위원**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지요, 시가로 따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부분이 굉장히…… 행사가로 말씀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사가는 아니고요.

○**김원이 위원** 실거래가로 적계는 43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보면 154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더라고요. 어쨌건 상당히 큰 부분의 재산상의 손실을 각오하신 거지요? 중기부장관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포기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장관 하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익 실현이 됐겠지요? 그 마음, 최대 154억에 달하는 개인 자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중소기업장관을 자임하고 나선 그 첫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 전공은 아니어서 아마 낯설 수도 있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십시오. 요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광주, 전남, 충청 그리고 부산 쪽 돌면서 타운홀미팅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잖아요.

장관후보께서 들어야 될 목소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전통시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좀 방문해 주시고 연관 기관이나 단체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좀 꼭 가져 주십시오. 그게 후보자에게 아마 성과로 크게 나중에 다가올 거라고 믿습

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또 하나는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여성기업이 급증하면서 일자리 확대에 의미 있는 역할을 여성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은 부족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성원 위원님하고 행사 다녀왔는데 지원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배민이나 쿠팡의 갑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취임하시면 배달수수료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세요.

○김원이 위원 취임하시면 배달수수료 문제 꼭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의 20%가 그냥 이 배달수수료로 다 날아갑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전기세라든가 이런 걸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네이버 출신, 앱파스 출신으로서 성공시킨 장관으로서 공공배달앱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이 전 정부 때 많이 깎였습니다. 22년에는 1132억이었거든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이 1132억이었는데 23년에 517억으로 줄고 올해는 92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좀 늘려 놨는데 과거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R&D, 진짜 지방 중소기업 하는 분들 정말 애국자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계획 있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잘 기록해 두겠습니다.

배달수수료는 아까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잘 들여다보고 챙겨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R&D 부분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사업하고 계신 분들을 특별히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오늘 인사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사회적 안전망 제공하고 앞으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리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지난해 폐업 100만 명 시대에 접근한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정호 위원 23년도 자영업자 폐업률 9.04%입니다. 코로나 이후 제일 높았고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금 하루하루 빚으로 버텨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늦었지만 2차 민생지원 추경을 통해서 113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배드뱅크를 통해서 매입하고 소각해서 악성채무 조정을 해 주고 또 무엇보다도 소비 진작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해야 되는 데 13.9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 지역경제 회복 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목표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5조 5000억 원인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아까 말씀 중에 다시 기억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아직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예, 44.8%입니다.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의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도 충전을 해 가지고 사실 들어오자마자 알게 돼서 써 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단순히 사용처가 제한적이다라고만 봐서는 되게 현상적인 인식입니다. 원인 진단이 그렇게 미흡해서, 불철저해서는 처방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교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정말 없애려고 했습니다. 발행지원금을 제로로 3년 연거푸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살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지역사랑상품권은 시장에서 많이 발행되고 유통되고 인기가 높은데 중기부가 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왜 저조한가, 더 지원을 늘려도, 반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쟁 상품권을 없애도, 지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의연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이 단순히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발행액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호응이 낫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두 상품권은 목적이 같습니다. 발행기관이 다를 뿐이고 사용처가 제한적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에 이

전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늘 나왔던 내용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전향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이 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지 이것 반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기부가 풀어야 될 핵심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해 보고요. 제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플랫폼 사업을했던 입장에서는 쌓여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람들의 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어디서 얼마를 썼고 언제 왜 썼고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의 데이터를 좀 한번 보고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한성숙 후보자님, 몸담았던 네이버가 6월 2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시가총액이 12위로 나왔습니다. 물론 재계를 다 그룹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개별 회사별로. 그리고 이번에 산자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두산에너빌리티는 14위로 나옵니다.

6월 23일 날 지명받았지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6월 23일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위였던 네이버가 몇 위까지 올라갔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8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상웅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8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상웅 위원** 5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4위에서 6위로 올라갑니다. 그날이 6월 23일입니다.

PPT 하나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 그래프가 보입니까? 6월 2일 날 대통령선거 하루 전이지요. 그런가요? 그날 18만 7200원이 네이버 주가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15일 날 하정우 AI수석이 임명되고 23일 날 한성숙 후보가 지명되면서 최고점은 29만 5000원까지 갑니다. 저건 종가 기준으로 28만 4500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6월 2일 날 시총 12위 때 시총이 얼마냐면 네이버가 29조 원입니다. 이때 주가가 18만 7200원. 23일 날 시총이 5위로 오르면서 시총이 갑자기 29조에서 46조로 바뀝니다.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8만 4500원입니다. 불과 20여 일 사이에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상승이 일어납니다. 51.9%가 상승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네이버에 AI수석 임명, 중소기업부장관 임명, 연이어서 또 다른 장

관 임명 이렇게 했을 뿐인데 6월 23일 기준으로 본다면 한성숙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그 뉴스 하나가 우리나라 재계 판도를 흔들어 버리고 시가총액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 하는 17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변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변동된 부분에 단 일이 %라도 감사의 사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23일 날 임명받고 이렇게 재계 서열이 바뀌고 시가총액 서열이 바뀌고, 12위가 5위로 올라가고 17조 원이나 되는 시총 차액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 했지요?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못 했습니다.

○**박상웅 위원** 상상했다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주식시장의 대혼란, 그 많은 돈들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합치면 거의 몇십 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본인은 네이버의 인터넷사업 전문가로 중소기업 맡아 가지고, 기업부장관 맡아서 얼마든지 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다 지원하고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제가 이력을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와 같은 업체들의 이익을 키우는 데 아주 탁월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은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주식 대혼란을 가져왔고 그 20일, 30일 사이에 일어난 주식시장의 변동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전체적인 파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파란의 중심에 서 있는 후보자가 ‘나로 인해서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는 아닐지라도 차라리 물러나는 게 맞다.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정책 한 두 가지만 위원장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소상공인들이 요즘 최저임금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쩌면 사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경영주이면서 노동자의 지위도 갖습니다. 그런데 매출이라든가 수익률을 볼 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바로 인접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또 그다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게 생산성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생계비, 생계비를 반영하는 것도 임금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800만에 육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율됨으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요.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도 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의 말씀 많이 듣고 제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중기부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책정됨으로 인해서 고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이런 더 낮은 임금이라도 나는 일자리만, 이런 일자리, 어찌 보면 나는 이 일이라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 생활로 생각하면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강제로 규율함으로 인해서 고용하고 싶은 고용주도 고용하지 못하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동부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강력히 목소리를 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할 부분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700만이 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용의가 있으느냐 이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 사항들은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요 후보자님, 지금 주 52시간제도가 있어요. 이 주 52시간제도는 네이버에 근무할 때도 R&D 부서에 있는 근로자들 문제, 고용주인 회사 측과 또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이분들 주 52시간제 이것을 경직된 제도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업종별로 탄력적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부분도 역시 업종별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버가 52시간 문제로 적용한 이후에 사실 전체적으로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노동의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성에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경직된 주 52시간제도의 획일적 적용을 지지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지한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위원장 이철규 아니, 이것은 장관의 소신과 그다음에 장관후보자의 소신 또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꼭 자영업을 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듣잖

아요.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아우성을 치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현장에 가서도 들으셨을 텐데 협회 회장 주 52시간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고요 저는 관련 업계의 말씀도 듣고 또 유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안이어서 이게 개인적 소신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지금 서면질의를 했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이에 주 52시간제도의 협회 적용이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 찾아서 말씀 듣는 일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편의점 주인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이윤, 영업이익을 얻습니다. 그분은 자영업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루에 18시간씩 중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더 못 해요. 그런데 더 고용하고 싶어도 최저임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최저임금이 안 돼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싶은데 편안한 시간에, 시간대별로 심야 시간대와 또 낮 시간대가 다를 거 아닙니까, 노동의 강도가? 그런 걸 좀 목소리를, 자영업자들의 고충 이런 걸 듣고 전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주저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중기부의 장관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소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시겠습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과 김종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종로구 삼청동 건물 지금 사무실로 쓴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사무실로 쓰는 듯한 외양을 갖춘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동생이 지금 사무실로 쓴다고 했어요. 원래 주택인 거를 근린생활시설로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사무실에 혹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동생 혼자서 쓰고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형수 위원** 혼자서 쓰면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왜 굳이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집으로 완전히 이전해 가면서 지금 별채도 있고 본건물도 있는 데인데요. 이걸 집으로 쓰지 않으면 건축법상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 변경을 했던 것으로……

○**박형수 위원** 뭘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택인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러니까 그걸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용도에 맞게……

○**박형수 위원** 굳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관련돼서 저희 건물 나와서 또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들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저는 영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조정지역 내 2주택인 경우와 3주택인 경우가 세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있지요?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사십 몇억쯤 되던데 그걸 계산하면 양도세 차이가 수억 원이 생겨요.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여러 번 고치면서 다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 세율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주택이었던 거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중소기업부 차원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를 후보자님께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긴급경영자금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거나 하는 방안들은 마련해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천 사업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혹시 재재보충질문도 있나요? 없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시지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하시고 더 추가…… 마무리하세요.

○**박형수 위원**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이철규** 마무리하시지요. 먼저 물으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재재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AI 대전환에 중기부가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중기부가 AI 대전환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역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3분이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적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답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AI 데이터 뉴딜이 중기부가 전략적으로 돌파해야 될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아까 AI 인프라 말고 AI 서비스에서는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지금 PPT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데이터예요. AI 중소기업이 70%가 데이터 부족, 데이터 관련된 투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이 서비스는 무슨 오픈AI나 무슨 라마나 이런 데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데이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AI를 하려면 또 비정형 데이터들이 취합이 돼야 돼요. 이 경쟁력으로 AI 서비스의 경쟁력의 좌우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경쟁력이 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창출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표준화 그다음에 데이터로 인한 수익의 배분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데이터공공성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만들어야 된다. 이것 늦었어요.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갖고 안 돼요.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뉴딜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데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내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나인 투 파이브 이런 일자리가 아니에요. 유연 일자리입니다, 유연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에서 고용형태에서 또 기간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유연한 데이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 AI 시대의 일자리 부족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쟁력을 높여 주는 투자기도 하고요. 이 것을 뉴딜 수준의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뉴딜에 대한, 이것을 중기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향상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서 꼭 AI 대전환의 주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의견 좀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보통 말하는 디지털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망사건 가해자,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강행한 인물, 오늘 불출석한 최인혁 증인 맞습니까?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당시에도 많은 비난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건 가해자 A 씨, 당시 한성숙 대표의 직속 직원이었다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대표이사 밑에 조직들이 다 있으니까요.

○정동만 위원 아니요, 직속 직원이었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 파트에 지도도 있고 여러 파트.....

○정동만 위원 직속 직원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성숙 CEO 직속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관련한 책임을 떠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게 최인혁 씨가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 맞지요, 이 기사 나와 있는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보도 내용 봤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이 당시 한성숙 대표의 직속 직원이었다면 최인혁 대표보다 후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책임지고 대표 자리를 물려났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 당시 네이버 대표로서 조직문화 관리 철저히 실패한 것 맞지요? 그것 책임지고 물려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문제는 더 있습니다.

해당 사건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 받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정동만 위원** 또 최근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 최근 6개월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응답했지요? 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직원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86억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가 대표였던 시절 네이버는 직장 내 갑질부터 조직 관리 실패, 비도덕적인 경영까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후보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정부 부처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근로감독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 처리할 부분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경영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전 경영진들 다 물러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님, 지난 질의에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월 2회 휴무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잘……

○**서일준 위원** 대형마트 월 2회 휴무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대형마트, 예.

○**서일준 위원**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휴무하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휴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전통시장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대형마트 휴무하는 기준이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의미합니다.

지금 소상공인하고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게 대형마트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대형마트보다는 더 큰 이유가 온라인 플랫폼, 우리 후보자께서 네이버에서 그렇게 번성을 시킨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상권을 저렇게 붕괴시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라인 플랫폼도 대형마트 규제하는 것처럼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대형마트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후보자께서.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피해

를 많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위해서’, 조금 전에 앞에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비자 니즈라고 생각한다면 대형마트는 왜 그렇게 휴무일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서일준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후보자님 뉴스의 관련 댓글을 보면요 어떤 댓글이 달리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중기부장관이냐? 차라리 대기업부장관이 더 맞겠다’ 그런 비아냥 섞인 댓글도 보이고요. 저는 온라인플랫폼부가 있다면 그 장관이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안……

○**위원장 이철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후보자와 네이버 주가와의 관계,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이것은 좀 사실관계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이슈라든지 최근 상법 개정 이후에 배당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3000 약간 이런 모멘텀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비율로만 따지면. 그래서 이게 후보자하고 네이버 주가 변동은 아주 조금은 상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제 뉴스가 청문회장에서 나가거나 확인되는 것은 부적절해서 제가 확인을 하나 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가 국감 때 부정 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기하고 이후에 같이 중기부하고 제도개선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제도개선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대안적으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고시나 지침 같은 것들의 개정도 사실 지금 늦은 상황이고 신고포상금제 같은 도입들도 사실 거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그때 왜 그런 종류의 부정 유통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도 사실 조금 중기부하고, 사실은 경찰에서도 약간은 혜매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후보자님이 들여다보시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당부를 드리고.

1분밖에 없으니까, 전통시장, 아마 가 보신 전통시장보다 안 가 보신 전통시장이 당연히 훨씬 많을 것이고. 특히나 혹시 대전중앙시장이라고 아십니까? 대전역 앞쪽에, 제 지역구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못 가 봤습니다.

○장철민 위원 점포가 한 3000개쯤 돼요. 100년이 넘은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사실 접근 방법도 다르고, 이게 아마 서류로만 보시면 그리고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전통시장의 뭔가 그런 어떤 콘텐츠에 대한 개선 이런 방식의 접근들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와 보시면 조금 다른 시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공간구조의 변화가 훨씬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00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2600개 정도는 사실은 수익이 아니야.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역사와 함께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도 이것 가서 디지털화 하자, 문광형시장으로 몇십억, 몇백억 콘텐츠 제공·지원하자, 하나 마나 한 이야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 기존 유통을 뛰어넘는 전통시장의 한 단계 더 큰 발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다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며칠간은 약간 애매한 시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조용히라도, 무슨 실국장님들 안 끌고라도 정말 지방에 큰 시장이고 작은 시장이고 공간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런 단순한 인사말씀이나 그냥 서류로만 보는 업무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과 훨씬…… 아까 혀종식 위원님이 전선줄 보여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 안에서의 구조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저도 더 많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예,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까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리스트들 죽 봤고요.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적용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이상징후 시스템 관련된 데이터를 체크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더 실시간 체크한다면 좋을 텐데 실시간 체크한다는 것이 또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적용할 부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은, 유럽은 위낙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장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계속 모든 곳의 디지털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시장 보면 디지털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디지털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운영하는 경영 차원이라면 업무를 시장상인회에 도와드려서 하는 디지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모든 부분을 온라인 스토어화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가는 것 그리고 오래된 곳들은 또 문화적인 스토리가 있게 가는 여행지처럼 만드는, 여러 가지 스토리의

공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앞서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길어서 제가 많이 못 물어봤습니다. 짧게짧게 해 주시고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외국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몇 퍼센트가 적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직 몇 퍼센트가 적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23%고 아까 죽 얘기했잖아요. 선진국은 몇 퍼센트고 OECD 평균 얘기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숫자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많다고 보는 거지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줄여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뭐 이것을……

○이종배 위원 전체적인 정책으로는 줄여야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소상공인으로 되는 것 이게 정부 정책 같이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분들은 재취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들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수 줄이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까 다른 것은 방향 맞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왜 이런 것은 얘기도 못 해요? 소신껏 얘기를 왜 못 하시는 거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종배 위원 줄여야지요, 자영업자 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런데 지금 저보다 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제 연령대에, 다시 50대 후반들이 또다시 나오는 상황들이……

○이종배 위원 줄여야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전체적으로는 선진국 방향이 돼야 되는 부분도……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정부 전체로 소상공인으로 그냥 준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코스는 말고 그것을 재취업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연령도 그래야 하향이 되겠지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 뭐 AX 같은 게 DX 같은 게 바로 시작이 되겠어요?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이종배 위원 우리 지역에 소담스퀘어라고 아세요, 소담스퀘어 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압니다.

○이종배 위원 그 정책이 끝났던데 그런 걸 잘 살펴보고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컬크리에이터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압니다.

○이종배 위원 로컬크리에이터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지역 특화된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주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화를 잘 활용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충주의 그런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제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덕분에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빈 상가에, 빈 점포에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활력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런 걸…… 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정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하던데 이런 것 잘 관심 갖고 키울 것은 더 키우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소기업 인력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사업들, 거기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 잘 살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한 가지 확인부터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네이버 스톡옵션 4만 주 포기하셨다는 여당 위원 질의에 거액의 재산을 포기 하셨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스톡옵션 4만 주 포기한 게 주당 행사가격이 3만 8500원 정도로 네이버 주식 주당 따지면 25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38만……

○구자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만 주 중에 6만 주는 행사해서 10억 정도 차익을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했으면 오히려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성남FC 뇌물 사건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계속해서 ‘신사옥 추진 경위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사옥, 그러니까 후보자가 총괄 부사장일 때 실질적으로

성남FC에서 뇌물 로비, 저런 식의 대가로 해서 계속 건축 인허가나 용적률 향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대표자 시절에 네이버 사옥이 착공됐고 완공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이사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다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까지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이해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씀하는 바지 사장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력적으로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네이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부장관도 혹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시면 중기부 외에 산업부나 환경부나 노동부나 여러 부처 업무하고 협업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오로지 중기부만 알고 다른 부처 일은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아니면 그걸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차관, 실장, 국장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이 되면 현직 장관 신분으로 앞으로 재판에 증인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김상현 전 대표나 김진희 전 네이버아이앤에스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재판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 대표들 재판받는 상황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김상현 대표 받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7월 22일 날 공판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예정돼 있는 건 모릅니다.

○**구자근 위원** 후보자가 장관 된다 해도 직무수행 내내 FC 관련해서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정진욱 위원** 성남FC 뇌물 사건이라고 사건 이름이……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사건 이름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까?

○**정동만 위원**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지요.

○**정진욱 위원** 검사입니까?

○**정동만 위원**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진욱 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사입니까?

○**정동만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뭔 소리예요?

- 김원이 위원** 질의할게요.
- 정진욱 위원** 무슨 성남FC 뇌물 사건이에요?
- 정동만 위원** 만들면 되지.
- 박성민 위원** 아니,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세요.
- 김원이 위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철규** 다들 조용히……
- 박성민 위원** 왜 동료 위원 발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공방을?
-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요.
- 정진욱 위원님!
- 정진욱 위원** 말도 안 되는, 성남FC 뇌물 사건이 뭐예요?
- 정동만 위원** 성남FC 사건 맞잖아요.
- 박성민 위원** 본인이 야당 할 때는 안 그랬습니까. 훨씬 더 했지!
- 김원이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 정진욱 위원** 윤석열 검사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지!
- 박성민 위원** 언제부터 여당 했다고 그렇게 두둔합니까?
-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철규**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발끈해 가지고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김원이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이 위원** 저는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들으면서 네이버만 주가 상승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진짜 하정우 수석, 한성숙 후보 때문에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완전히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을 확인해 봤어요, 급하게.

코스피를 일단 기준으로 봤더니 24년 11월, 즉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24년 11월에는 약 2556p더라고요, 11월 1일 날.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당일은 2656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한 달 후인 25년 1월 2일에는 최저가를 찍습니다, 2424p. 그러다가 대통령선거 전일에는 2600p로 오르고 오늘 종가는 3215p가 올랐습니다. 25년 1월 2일 최저가였던 2424에 비하면 약 800p가 올랐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니까 약 33%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코스피의 전체적인 상승,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상법이라든가 이런 자본 선진화법들이 통과되면서 오는 효과라고 봐야지 네이버만 받은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도 찾아봤어요. 24년 12월 10일 날 20만 9000원, 25년 6월 4일, 즉 대선 직후에 18만 7700원, 6월 24일이 최고가를 찍습니다, 29만 8800원. 즉 작년 12월 10일 기준으로 6월 24일과 비교했더니 약 60%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네이버 주가를 봤더니 25만 500원이에요. 다시 그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16%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저가였던 24년 6월 4일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으로 18만 원 얘기했으니까, 18만 7700원 기준으로 하면 오늘 가격 25만 500원은 16%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평균 33% 상승률보다 그 반밖에 안 돼요, 네이버.

또 하나, 네이버만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카카오도 한번 뒤져 봤어요. 카카오가 25년 6월 4일 날 4만 1550원에서 25년 6월 24일 날 최고가를 찍는데 7만 1600원이에요. 약 72% 가 오르고 오늘 종가는 5만 7300원으로 그 최고가 기준으로, 6월 24일 기준으로 1만 4000 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이버만 한성숙 후보자의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시장 선진화법 이른바 상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의 일환에서, 전체적인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혜택을 본 것이지요. 아니, 안 그러면 카카오는 안 올랐어야지요.

○박상웅 위원 여기에 다 증거가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주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 가만 계세요.

○박상웅 위원 코스피는 23%밖에 안 올랐어.

○김원이 위원 아니, 33% 올랐어요.

○박상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1.9% 올랐다고. 국회에서 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원이 위원 물론 기준일로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한규 위원 아까 다른 위원 발언 다음에 해라, 허가받지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박상웅 위원 아니, 발언 다 끝났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철규 발언 중에는 자중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주식은 제가 삼은 기준일과 아마 박 위원님이 삼은 주가 기준일이 달라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요. 제가 기준일로 따진 6월 24일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김원이 간사가 지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위원장 이철규 잠깐.

계속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아니요,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웅 위원 대변인이요? 변호인……

○박성민 위원 중기부장관후보자가 두 분이야, 두 분.

○김원이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불행하지만 한성숙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코스피 주식시장의 상승에서 오는 효과지 한 후보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그냥 제 발언 시간에 좀 섞어서 질의하자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다 오른 것은 맞습니다마는 총액이 그렇게 12위에서 5위까지 뛰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이고.

장관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보세요. 뭐냐하면 제가 아까 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갖다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고용노동부에서는 소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신 부분 제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냥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여기서 가르칠 그럴 시간도 안 되고.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성원 위원 그래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되는데, 저는 해명도 진짜로 조금 너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근로소득하고 투자소득으로 정당한 부를 축적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하고 거짓 해명을 일삼는 후보자의 태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냐? ‘팔십 넘은 모친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보자 본인은 67평 3층짜리 대저택에 살고, 여동생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모친은 시세 50억 원에 육박하는 57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구입했을 때 2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시세가 2배가 넘었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만 실거래가가 8억 원이 넘게 뛰었어요. 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은근슬쩍 효도로 포장을 한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친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봤던 자료에는 43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는 얼마가 뛰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최근에……

○김성원 위원 재건축 앞두고 있어 가지고 매매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 않

습니까? 그런 것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위원님, 제가 그 아파트를 산 것은 최근에 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거 샀을 때보다, 지금 실거래가가 거의 50억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아파트 샀던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일 때 샀던 시점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17년 정도 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저 이따가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 이철규** 마무리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위원장 이철규** 무슨 말씀이요? 신상발언이요?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주당의 정진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와중에 성남FC 관련 뇌물 관련 이야기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과감하게 국회의원이 검사냐고, 윤석열 검사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의 범죄 혐의 사실이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렇게, 지금 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뇌물을 뇌물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할 입장인 것 같으면 정 위원님께서 뇌물을 어떤 용어로 바꿔서 순화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되어서 이 본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질문을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동료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신상발언하겠다고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 신상발언을…… 또 반론을 하고 하면……

○**정진욱 위원** 저는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1분만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1분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늘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정진욱 위원 아니, 1분 가지고 되냐고요.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구자근 위원에게 1분밖에 신상발언 기회를 안 줬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 관대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1분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게 적용됩니까?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무죄추정의원칙을, 여기에 판사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언론이 다룰 때 또 우리가 다룰 때는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항상 ‘의혹’이라든가 ‘혐의’라는 말을 넣어서 무죄추정의원칙을 관철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성남FC 뇌물 사건이면 나머지 다, 아까 홍준표·유정복·안상수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그것 다 뇌물 받은 겁니까? 다 뇌물 사건들입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고 검찰이 프레임을 씌워서 만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양당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늘 회의장에 오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바깥에서 관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늘 양쪽이 다 같았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게 정당해 보이고 내가 상대가 될 때는 이게 부당하다라는 생각, 이중적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여기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니, 진짜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됐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의 발언은 위원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김원이 위원 위원이 발언한 것은 위원 발언으로 받으면 되지요.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좀……

간사님, 위원장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발언을 하시는데 객관적 사실을 비틀어서 신조어를 만든다든가 또는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좀 인내하고 듣기 거북해도 들어 주시기를 양쪽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평생 IT에 종사해 온 한성숙 후보자가 부동산투자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유 및 관리 과정에서 불법·편법·탈세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생이 카페로 영업 중인 연건동 건물 두 채를 한 채로 연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

증축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고 사후에 이것은 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철거를 해야 되고 종로구가 아직까지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이 사실을 묵인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 정도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3년 동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2층과 4층에 별도의 허가 없이 옥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한 건물에서 벌써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두 가지 범법 사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삼청동에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한 후보께서 사시는 주택과 그 앞의 한옥 건물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도 불가능하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했지만 이것은 양도소득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를 하기 위한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전체 종부세를 2021년에 오천몇백만 원 내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니까 9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용도변경을 합니다. 주택에서 2종 균생으로 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탈세를 위한 것이고요. 실제 건물을 2종 균생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생에게 20만 원의 형식상 임대 내고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인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전세가 한 3000만 원에 월 200만 원의 월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여세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백히 지적을 하셨지만 양평에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농지법을 위반했고 이것은 농지법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을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동산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만 보더라도 어머니가 사시는 주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법·편법·탈세가 적어도 5건, 6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냐. IT에서 사업했다는, 성공했다는 분이 부동산투자에 이렇게 불법·편법·탈세로 투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성숙 후보자께서 ‘프로젝트 꽂 하면서 진심으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도왔고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장관으로서 아주 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응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프로젝트 꽂 플랫폼 전략을 보면요 처음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유인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액 2% 수수료 내야 되고 입점 고정비 내야 되고 그리고 판매수수료 내야 되고 결국은 그다음에 플랫폼 여러 가지 규칙 바꾸고, 그래서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이런 독점적 구조하에서 오히려 판매 입점업자들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네이버의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라서 과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대 오픈마켓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스토어 부분은 시장 수수료는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빠른 정산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사업자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계속 저에게 많은 부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플랫폼과 사업자들 간의 상생책에 대한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부분은 통상 논의 중인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가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을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다가 미국 통상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 결국은 불공정한 거래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면계약서를 교부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바꿀 때 미리 고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적극 추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 기업자로서 했던 행태와 정반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소기업부장관의 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 불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이라면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네이버 기업자로서 하셨던 일의 180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면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의 김정호입니다.

한성숙 후보님, 중기부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 법률이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지금 2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28개, 정확하십니다. 법명을 다 외우시지는 못 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법명은 사실 기본법 있다는 거 알고 각 항목별로 특별한 부분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중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혹시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목은 다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목은 보셨지요. 이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상승이 그때그때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원재료 상승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지면서 이게 누적 적자 요인으로, 그걸 개선해 보고자 우선 원재료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1월에 시행됐는데요. 말 그대로 원재료에 한정해서 전기료, 가스요금, 산업용수 이런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뿐리업종, 뿐리업종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김정호 위원** 이게 대체로 평균 10% 이상 전기료가,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요금이 오른다 하면 엄청난 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서 이게 요즘처럼 지속된 상황에서는 이런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중기부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 좀 법안 심사를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아마 최근에, 3월경에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뿌리업종에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아마 결론은 이게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전향적으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이 공약을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개정에 동의하시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여야 합의도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내용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눈에는 여기 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 다 적어 가면서 제가 된다면……

○**박상웅 위원** 그래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목숨을 끊고 그런 직장 내 갑질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네이버의 CEO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사직하고 유럽으로 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맞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의 CEO로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갔다면 몇 년 지났다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전국의 1000만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이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돼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제가 그때 책임을 졌던 부분은……

○**박상웅 위원** 책임지면 몇 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과거를 묻지 말아야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박상웅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께서 카카오 말씀을 뜯금없이 하시던데 저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 후보자가 지명되는 그날까지의 변동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시총이 12위에서 무려 일곱 계단을 뛰어올라 5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 차이가 17조 원이나 일어납니다. 무려 51.9%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총이 증가합니다. 이 상황이 간단한 일입니까?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6월 23일 이후로 상황이 다시 바뀌지요. 바뀌면서 지금 25만 원, 26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난 한 달 동안 그 이득을 본 세력은 다 봤습니다.

주가조작 주가조작 그러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거는 주가조작의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의 대교란을 유도해 낸 어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건 조사를 해 봐야 할 부분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막대한 주식의 차익이 어떻게 훌러갔는지 짐지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한테 요청까지 했던 겁니다.

속기록에 기록됩니까, 이 이야기가?

(「다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정무위 소관이니까……

○**박상웅 위원** 다 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질문 끝!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정부 다른 정부 할 것 없이 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좀 더 이해하는 분이 중기부장관으로 오신 적은 없는가……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이 부자나 잘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우선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과는 정반대인 재산 증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후보자께서 오셔서 사실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총 4채의 100억 원대 부동산 그다음에 182억 원이라고 하지만 스톡옵션이 258억 원…… 한 해 총수입이, 2017년도 총수입이 얼마라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17년……

○박성민 위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연봉……

○박성민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

○박성민 위원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재산이 240억이라고 하더라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이 없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부지기수라는 현실을 꼭 인식을 하시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돈이 마귀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는 마귀다 이렇게 하시는데 공직자가 돈 많은 게 절대 자랑이 아니라는 생각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서러운 서민들에게 꼭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젝트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발언에서 계속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데 제가 쭉 보니까 온라인쇼핑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카카오에서 대리기사, 주차장, 꽃 배달 서비스 하듯이 네이버에서도 배달의민족처럼 결국에는 재래시장에 플랫폼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을 좀 뽑아 가지고 네이버 배 불리려고 그렇게 했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 좀 더 보살피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말씀하신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추가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양당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꼭……

○강승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꼭……

○강승규 위원 아니, 전례가 다 있는데 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 왜 추가질의 두 명만 제한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두 명만 한댔어요, 누가?

○강승규 위원 저희 할 때 저희들 다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두 명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추가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꼭 질의하는데 시간 때문에 못 했다, 꼭 이 부분만큼은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협의 좀 하게.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잠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또 후보자와 또 부처에서 오신 청문회팀 관계자들도 잠시 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박형수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세 분의 추가질의만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세 분의 질의만 하고 청문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님,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서 의성, 청송, 영덕 그다음에 안동, 영양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고 또 산청 지역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하긴 하셨는데 아직 제대로 공부는 덜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산불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개별 보험으로 원래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개별 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또 위낙 이번에 피해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1차 추경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았냐면 철거하고 복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다 지원을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철거 비용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건물이 됐거나 모든 공장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철거 비용을 다 지원했는데 복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지금까지 복구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용역을 줘 놨습니다. 중기부는 나름대로 빨리한다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애가 타는 지경입니다. 그분들은 기본 생계비 이외에는 아직 기준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주민들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기부에서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서 기준을 국회와 협의를 하든지 또는 중기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오늘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여러 질문을 받아 보니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을 조정하고 상충되는 가치들을 조정해야 되는 그 업무가 네이버에서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오늘 아마 느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지명되고 난 뒤에 한 20일, 30일 정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하루가 더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얘기들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서 만약에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든 분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님, 2019년 4월 네이버 대표 시절에 지역언론 배제 이슈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서일준 위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네이버에서는 ‘처음부터 모바일 뉴스판에 지역언론은 포함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국정감사 위원들이 ‘모바일 뉴스에서 지역언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뉴스 제휴는 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서일준 위원** 또 알고리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아닙니다. 제휴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서일준 위원** 결국 수익성 때문에 지역언론 배제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소위 말하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약자고 지방이고 이걸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이버에 계실 때 지역언론이라고 홀대를 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몸담고 계셨던 대기업,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후보자 지명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참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속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보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청문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또 답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환거래 내역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휴무일, 이것을 다음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이 부분은 내용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

니다.

○서일준 위원 결국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릴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추후에 다시 보완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이제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후보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승낙한 이유 등으로 AI 전환 시대에 중소기업부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평생 종사한 IT 및 디지털화 시대에 결국 이것이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 IT 및 디지털화의 큰 주도적인 계층은 대기업이었고, 대기업 등이 이런 시대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나 온라인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서 뒤처지거나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네이버에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꽂 등을 해서 온라인 사업, 디지털화 사업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 대상에서 제재 이유 등으로 외압에 의해서 생색내기로 한 것이고 실제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AI 전환 시대에도 중소기업부의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은……

AI 전환 시대에 데이터라든지 대기업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IT·디지털화 시대에 AI의 일정 정도 맥을 가지고 있는 한성숙 후보자가 중소기업부에서 해야 될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의 중흥 정책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 탕감을 하겠다고 했고, 이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탕감을 한다는 것이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이런 장기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빚을 내면서 가족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겨우겨우 중소상공인을 이어 왔습니다, 장기연체해서 혜택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중흥 정책이 있습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그분들한테 온라인화, 디지털화 제가 지원하겠다’ 이럴까요?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오신 것, 경영능력 이런 것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맞이하고 있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수요가 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승규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답변 요구하신 거 아니시지요?

○강승규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에 다시 4차 추가질의까지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 그리고 질책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성숙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별도로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구자근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한 한성숙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전재수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첨가 위원(1인)

김성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출석 공직후보자

한성숙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장세훈
창업정책관 조경원

○출석 증인

오세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